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속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김 숙

# 인 준 서

김 속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0월

심사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가계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족원이 삶 전반에 걸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가계가 속해 있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및 소득의 불안정 등 가계 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오늘날 핵가족 가계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계 내·외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안 요소는 부부 간에 재무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해 결혼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상황에서 가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계관리자가 인지하는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간의 관계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및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측면 및 객관적 자원보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 구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과 재무가치관 유사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이들 변수의 조절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둘째, 가계 특성이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조사한다. 셋째,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간의 인과적 구조관계는 어떠한지 조사한다. 넷째, 동 구조관계에서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부부간 재무가

치관 유사성에 따른 조절효과는 어떠한지 조사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Window(version 22.0) 프로그램과 AMOS(versio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Test), 중다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변수 간 구조 관계를 알아보고,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검증 결과 소득스트레스는 여성, 50대 이상,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하, 남편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군이거나 비취업자인 경우, 부인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군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전·월세거주자인 경우, 부채상환액이 있는 집단,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 부부간 의사결정유형이 부인결정형인 경우에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스트레스의 경우는 남편과 부인 학력 고졸이하, 부인의 직업이 전업주부 및 판매·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부채상환액이 있는 집단,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산스트레스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스트레스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부채상환액이 있는 집단,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부채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의 경우, 남성인 경우,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사무·기술직군이거나 전문·관리직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가계와 남편결정형 가계의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20~30대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주택을 보유한 가계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상환액이 적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중간 집단인 경우에 소득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족수가 적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에서 자산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채상환액이 높을수록 부채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이 부채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주관적 생활수준 인식이 중간인 집단에서, 그리고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높을수록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 20~30대인 경우, 남편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소득스트레스와 자산스트레스는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스트레스는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 모두 결혼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은 결혼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스트레스 경로계수의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 재무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이르는 3개 경로 중 소득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나타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고, 자산스트레스와 부채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곱째,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집단과 일방결정형인 두 집단 간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 7개의 경로 중에서 부채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소득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여덟째,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 7개의 경로 중에서 소득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자산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 부채스트레스에서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재무스트레스, 가계 재무관리갈등 및 결혼만족의 구조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로 가계관리자가 인지하는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가계재무만족,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부간 가계재무관리갈등이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부간 공동의사결정과 부부간 재무가치관유사성이 재무관리갈등을 줄이고 결혼만족을 높이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서 부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학문적 측면 외에도 가계의 경제 위기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6
1. 재무스트레스 .....	6
2.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	14
3. 결혼만족 .....	18
4.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	25
5.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	29
6.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의 관계 .....	32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41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41
2. 측정도구의 구성 .....	43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46
4. 조사대상 자료 및 분석방법 .....	48
IV. 연구결과 및 해석 .....	5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0
2. 가계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	55
3. 가계 특성이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	66

4.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	72
5.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	81
<b>V. 결론 및 제언 .....</b>	<b>89</b>
1. 요약 .....	89
2. 결론 및 제언 .....	92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표 목차

〈표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47
〈표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51
〈표3〉 조사대상자의 가계경제 특성 .....	54
〈표4〉 주요변수 특성 .....	55
〈표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자산·부채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57
〈표6〉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른 소득·자산·부채스트레스차이 검증 .....	60
〈표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차이 검증 ..	62
〈표8〉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차이 검증 ..	65
〈표9〉 가계 특성이 소득·자산·부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	69
〈표10〉 가계 특성이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	71
〈표11〉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검증 .....	73
〈표12〉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분석 .....	74
〈표13〉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분석 .....	75
〈표14〉 구조방정식모형 잠재변수 간 경로 유의성 검증결과 .....	79
〈표15〉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효과분해 결과	79
〈표16〉 재무의사결정 측정모형의 등가성 확인 .....	82
〈표17〉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검증 .....	84
〈표18〉 재무가치관 유사성 측정모형의 등가성 확인 .....	86
〈표19〉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검증 .....	88

## 그림 목차

<그림1> 연구모형 1 .....	42
<그림2> 연구모형 2 .....	43
<그림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76
<그림4> 구조방정식모형 검증결과 .....	80
<그림5>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결과 .....	84
<그림6> 부부간 재무가치관유사성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결과 .....	88

#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 I. 서 론

### 1. 연구배경

가계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족원이 삶 전반에 걸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가계가 속해 있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개별 가계의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등 가계 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오늘날 핵가족 가계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체감경기 악화 및 소비부진은 개별 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환경적이며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가계 내·외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안 요소는 부부 간에 재무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해 결혼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조기퇴직, 이직, 실직 등이 빈번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경제적 위기는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가계의 소득과 자산, 부채 문제를 포괄하는 부부간의 재무적 갈등은 일상생활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박종욱, 손상희, 2018), 다른 영역에서의 갈등보다 경제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부부간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Dew, Dakin, 2011).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가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계관리자가 인지하는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

혼만족 간의 관계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가계의 소득수준, 저축액수, 주택보유여부, 부채유무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지만(정혜경, 여정성, 1999; 유을용, 계선자, 2003; 김미린, 홍은실, 2010 등), 가계 소득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홍숙선, 2001; 정기선 등, 2004; 최정혜, 2006, 박주희, 2011). 장춘미(2009)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편에 대한 긍정적 지지행동이 감소하고 갈등이 높아져 남편의 결혼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희경(2009)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압박 자체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연구에서 가계의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즉 직업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가정생활의 만족을 떨어뜨리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족에게서 부부의 갈등은 높아진다(권희경, 2009) 경제가 성장해 대부분의 개인이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고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 상태에 대한 스트레스와 상대적인 불만족은 직·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한편,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부의 재무스트레스는 어느 가계에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가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결혼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Voydanoff,

1984).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문밖으로 나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계 재무상황의 악화는 부부에게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되어 갈등을 유발하고 부부의 결혼만족과 가족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계의 재무 문제는 부부의 관심주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주제이므로 부부간 의사소통이 불분명하고 부족해 갈등이 내재될 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김정훈, 1995a).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재무관리과정에서 심리적 변수와 더불어 부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박명숙, 2003). 고지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가정일수록 다른 갈등 영역에 비해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이 높은 여성의 경우 다른 영역의 갈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재무의사소통 상황에서 부부 각자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의사도 포함시키게 된다(김효신, 1986). 부부간 의사결정권은 부부간의 목표에 갈등이 존재 할 때 서로의 행동에 누가 더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능력으로(김홍은, 1986) 부부간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지 혹은 배우자 일방의 영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부부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갈등은 줄고 만족감은 증진될 수 있다. 부부간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주부의 학력, 자녀수, 월평균소득, 생활소득 인지도와의 관계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이정우, 박은아, 2001) 대체로 부부간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가계의 배우자 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현숙, 1995)

한편, 부부간 재무관리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금전 사용방법, 소비유형, 금전관리에 대한 태도 등이 상반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인 갈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재경, 문숙재, 1992).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부부 각자의 만족감도 크다(Allen, Thompson, 1984). 고재홍, 전명진(2003)은 부부간 결혼가치관 유사성을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부간 유사성 여부가 부부 관계 즉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김은지, 박재호, 2010), 특히 가계재무영역에서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스트레스를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과 결혼만족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회·인구학적 측면 및 경제적 자원보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부간 재무의사결정 유형과 재무가치관 유사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이들 변수의 조절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만족 연구에 있어서 가계의 재무스트레스 및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이 높은 관련성을 갖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 이들 변수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에 주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재무스트레스를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과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동 변수들의 구조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과 부부간 재무가치관유사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게 특성에 따라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게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를 조사한다. 둘째, 가게 특성이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게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조사한다. 셋째,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게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간의 인과적 구조관계는 어떠한지 조사한다. 넷째, 동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과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른 조절효과는 어떠한지 조사한다.

본 연구는 가게관리자가 인지하는 재무적 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게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학문적 측면 외에도 개별 가게의 경제적 불안상황 발생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인과 가게 스스로 가게 재무위기 상황 발생 시에 가게의 재무적 상황과 부부의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결혼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큰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1. 재무스트레스

#### 1) 재무스트레스의 개념

가계는 자원과 목표 및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원들이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하는 과정을 하는 경제 주체로, 가계경제 활동의 주요 내용은 소득을 획득하고, 그 소득을 소비·지출로 배분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다(이기춘, 1996). 이러한 가계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가족원이 삶 전반에 걸쳐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가계가 속해 있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가계의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등 가계 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이 때문에 가계관리자는 심리적인 불안과 가계재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재무스트레스란 가계의 재무관리자가 특정한 재무적 상황에 놓였을 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즉 재무스트레스는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지혜, 주소현, 2013).

이러한 재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이기춘(1996)은 인플레이션, 실업, 재산의 손실과 관련 있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들고 있으며, 정선희, 오정옥(1991)은 가계관리자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금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았고, Voydanoff, Donnelly(1988)는 가장의 실직, 예기치 못한 지출, 부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계에 재정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

았다. 또한 유을용, 계선자(2003)는 무계획적인 지출, 충동적 소비, 과도한 소비지출 등이 가계의 재정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았고, 홍향숙, 이기춘(1999)은 실직 특히 가장의 실직과 인플레이션, 소득의 감소가 경제적 불안을 유발하고 가계의 자원제약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Peirce 등(1994)은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과 생활기술의 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금융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긴장감이 다른 소득층보다 높다고 하였다.

가계관리자가 지각하는 재무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경제적 스트레스(노자경, 1996; 이미숙 외2000; 계선자, 박혜성, 2008; 현은민, 2007; 장윤옥, 정서린, 2009), 재정스트레스(유을용, 계선자, 2003), 재무스트레스(신효연, 홍은실, 2014; 오은주, 정순희, 2014; 한가은, 김정숙, 2014; 김성숙, 2016), 경제적 불안(홍향숙, 이기춘, 1999; 정혜경, 여정성, 1999; 정서린, 장윤옥, 2007; 김미린, 홍은실, 2010, Voydanoff, Donnelly, 1988), 재무위기(박명숙, 2003), 경제위기(이경옥, 정용선, 2000), 재정문제(이정우, 정진희, 1999), 재정상황 인지도(김정숙, 1996), 경제압박(현경자, 박선영, 2012) 등 유사한 개념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자경(1996)은 경제적 스트레스란 경제생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고통, 위협에 대해 가족원이 지각하는 곤란 정도와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연구한 계선자, 박혜성(2008)은 경제적 요구나 경제자원의 변화로 인한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 자산에 대해 노인이 인지하는 갈등, 긴장 혹은 부담감으로 정의했으며, 신효연, 홍은실(2014)은 재무스트레스를 가계의 지출, 자산, 소득, 부채와 관련된 재무적 자원의 결핍 또는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과 고통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 내렸고, 결혼이민여성의 재무스트레스를 연

구한 오은주, 정순희(2014)는 개인의 재무적 상황이 재정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 대학등록금 지불 및 노후준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을 재무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현경자, 박선영(2012)은 경제적 압박이란 경제적 자원이 가계의 기본적인 욕구와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홍향숙, 이기춘(1999)은 가계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한다면 가계 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제적 안정이 위협 받는 상태를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하였다. 김성숙(2016)은 재무스트레스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객관적 경제 생활 수준이나 경제적 결핍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수준이나 경제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심리상태 혹은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재무스트레스는 금전적인 곤란, 긴장과 고통, 위협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어려움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미린, 홍은실(2010)은 경제적 불안이란 가계의 재무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계 재무관리자가 소득이나 자산, 지출과 부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위협상태로 정의했으며, Voydanoff, Donnelly(1988)는 경제적 불안은 가계의 경제적인 안정에 영향을 주는 가계의 구조적 요인으로 고용과 소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생각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내·외적인 요인과 관련된 재무적 결핍 또는 변화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 혹은 긴장을 재무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재무스트레스 하위영역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선행연구에서 그 영역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연구한 노자경(1996)은 농가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제적 스트레스원 경험 정도를 평가하여 측정했는데, 경제적 스트레스원을 소득의 감소, 만성적 현금부족 등을 포함한 소득영역, 여러 소비지출 항목과 조세공과금을 포함하는 소비지출영역, 이자상환 및 자산과 투자를 포함하는 자산영역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연구한 계선자, 박혜성(2008)은 은퇴 후 고정수입원의 상실과 가계소득 감소, 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지출, 한정된 자산 등으로 인해 노인가계가 인지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를 소비·지출과 자산·부채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도시주부의 재정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을 연구한 유을용(2002), 도시가계의 재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신호연(2013)은 재정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을 일반지출과 특별지출을 포괄하는 지출스트레스 영역, 노후생활자금과 관련된 자산스트레스 영역, 소득단절로 인한 생활비 부족과 관련된 소득스트레스 영역, 부채문제와 관련된 부채스트레스 영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가계의 재무위기를 연구한 박명숙(2003)은 가계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정문제인 재무위기를 실직, 노후생활, 일상생활 자금, 자녀교육자금, 과중한 의료비용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대비의 정도를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재정문제를 연구한 이정우, 정진희(1999)는 가계가 경험하는 재정문제는 한정된 자원으로 현재의 소비수요와,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요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정문제의 영역을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긴급자금문제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재정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재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오은주, 정순희(2014)는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재무스트레스를 자녀 대학자금마련 스트레스, 생활비 스트레스, 노후준비 스트레스의 3개 범주로 구분 하였다.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이지혜, 주소현(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무스트레스의 영역을 교육비 부담과 소비긴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Vydanoff, Donnelly(1989)는 경제적 불안의 구성 요소를 고용과 소득, 객관적·주관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불안이란 가계의 소득과 고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불안의 주관적 감정은 실업 가능성 및 기간에 대한 추측,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추측과 관련된 고용불확실성과 재정자원의 적정도, 재정적 염려와 걱정, 장래 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경제적 긴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적 불안의 객관적 상태는 실업기간, 실업 횟수, 취업 횟수, 불완전 고용정도, 하위직으로의 이동, 강제조기 퇴직과 관련된 고용불완전성과 저소득, 부족한 재정자원, 소득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박탈로 구분하였다. 김미린, 홍은실(2010), 정서린, 장윤옥(2007)은 경제적 불안을 소득 및 자산관련 불안, 목적자금 혹은 비상시 준비와 관련된 재정안정성 불안, 경조사비등과 관련된 선택지출 불안, 생활자금과 관련된 필수지출 불안, 부채상환과 관련된 부채 불안의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Conger 등(1990)은 경제적 압박, 빈곤선에 대한 소득비율, 불안정한 고용으로 경제적 불안을 측정하였고, Lorenz 등(1991)은 자산과 소득 및 고용 상태로부터 경제적 불안이 발생하며, 이것이 경제적 곤란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곤란은 다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제적 곤란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연구한 강숙자(2012)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대학생 개인의 학비와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외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경제적 스트레스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경제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경제적 어려움, 주관적 경제지위, 미래 경제걱정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와 같이 재무스트레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측정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용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소득 감소를 포함하는 소득영역,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 자녀 결혼자금 마련을 포함하는 자산 영역, 은행 융자금 상환을 포함하는 부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부담의 하위영역을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재무스트레스 관련 요인

재무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계의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및 연령과 재무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미숙 등(2000)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경제적인 불안상황에서도 부부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부인보다 남편의 경우 경제적 불안상황에서 느끼는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자경(1996)은 소비·지출과 자산영역에서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무스트레스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유을용, 계선자(2003), 이정우 정진희(1999)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Varcoe(1990)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교육비 등에 있어서 재무 문제에 많이 직면한다고 하였으며, Keese(2012)는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가계에서는 집이나 내구재 구매

를 위해 채무를 지는 상황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채 영역에서 재무스트레스가 더 적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교육은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홍향숙, 199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반드시 소득이 상승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과 고소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득과 취업가능성을 통해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미린, 홍은실, 2010). 남편 교육수준과 재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Williams 등(1976)은 도시가계의 경제문제와 교육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김미린, 홍은실(2010)은 재정안정성 영역에서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고보선(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 지위가 높을수록 객관적인 재무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직업과 취업여부, 직업만족도는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경우와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경우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우, 정진희, 1999; 유을용, 계선자, 2003; 김미린, 홍은실, 2010).

한편 가계의 경제적 요인 중 소득과 재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의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 최덕경, 1992; 고보선, 이영호, 1995; 정혜경, 여정성, 1999; 유을용, 계선자, 2003; 김미린, 홍은실, 2010). 또한 주택의 자가 보유 여부도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 주택을 소유함은 주거공간의 확보라는 물리적 의미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와 계층의 표현이 되며, 가족들에게 안정감과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곽인숙, 1989). 자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주택보유 가계가 전·월세 가계에 비해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유을용, 계선자, 2003),

김미린, 홍은실(2010)의 연구에서는 부채영역에서 주택보유 가계의 재무스트레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경제적 요인 중 가계총자산액과 가계총부채액도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의 총자산액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노후·긴급자금 등의 전 영역에서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총부채액은 소득과 지출, 부채영역에서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우, 정진희, 1999; 노자경, 1996). 또한 노자경(1996)의 연구에서는 경제자원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합산한 경제적 안정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자산, 소득영역 모두에서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가계의 인적·물적 자원의 걱정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인 자원걱정감이 높을수록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노후·긴급자금의 모든 영역에서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우, 정진희, 1999).

## 2.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 1)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의 개념

가계가 직면하는 재무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원의 부족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이다(Hefferan, 1982, Varcoe, 1990). 가계관리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계의 주체인 부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효율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방해한다. 많은 경우 가계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데, 부부간 재무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무관리갈등은 줄어들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가족원 삶 전반에 걸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과 갈등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심혜선(2000)은 “의사소통이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 감정,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가계 자원의 관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고 하였다. Coser(1956)는 갈등을 가족체계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부부가 서로의 자원의 차이와 기본 목표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오해나 상호이해의 결여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 방해 받는 어려움의 정도 혹은 긴장으로 정의하였다(김재경, 문숙재, 1992 재인용). 황덕순, 정운영(2001)은 가계재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부간 의사소통의 빈도는 어떠한지, 회피적인지 혹은 개방적인지에 대한 효율성과

어느 정도 일치 하는지를 통해 재무의사소통을 측정하였다. 신호연, 홍은실 (2014)은 “재무의사소통이란 부부 상호간에 가계 재무에 관한 의견, 감정 및 생각에 대한 대화를 얼마나 자주 나누는가, 대화 시 조화를 이루는가, 대화 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하는가, 대화과정에서 갈등하지 않는가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주관적 평가” 로 정의하였다. 김정훈(1995b)은 남편과 부인,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에 따른 재정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재정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의사소통을 재정 의사소통 개방도와 재정의사소통 갈등도로 나누고, 재정의사소통 갈등도를 부부가 가계 재정 문제들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하여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란 부부 상호간에 가계재무관리와 관련한 생각, 감정,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의 자원, 목표, 욕구, 상호이해의 결여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긴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관련요인

돈은 부부가 논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결혼 갈등의 주요 근원이다(Rowe 등, 1994; 김재경, 문숙재, 1992). 주부들은 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제한된 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야 하는 주부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이정우, 최덕경, 1992). 이렇듯 돈 문제는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부부 관계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돈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 하는 문화적인 영향 탓으로 대다수 가계에서 부부간 재무관리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김재경, 문숙재(1992)는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금전사용방법, 소비유형, 소득의 주 소비자가 누구인가, 주요 수입원이 누구인가, 금전관리에 대한 태도 등이 상반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Mugenda 등(1990)은 가족수가 많고, 부채가 많은 가계가 재무관련 의사소통을 더 많이 했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가계관리자는 재무관리행동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부부사이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른 재정의사소통 갈등도를 비교한 김정훈(1995a)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권위형이나 희생형과 같이 일방적인 방향을 갖는 경우 재정의사소통 갈등을 많이 경험하였고, 부부가 의사소통에서 상황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의사소통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재정의사소통에서 갈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른 재정의사소통을 연구한 김정훈(1995b)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총 소득이 낮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자신의 소득 비율이 낮을수록 부부사이에 재정 문제로 더 많이 다투고 보다 심각한 재정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숙련직이 기타 직업군에 비해 재정 갈등이 많았고 전문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재경, 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형성기 가정에 비해서 확대기 가정인,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에 비해 전문대졸 이하일 경우, 남편과 부인의 직업이 전문직에 비해 비전문직일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재정 관리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빈 등(1995)은 의사소통 효율성을 토론, 회피, 개방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한 집단보다 부채가 없는 집단의 경우, 경제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5년 전보다 현재의 경제

적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5년 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황덕순, 정운영(2001)의 연구에서도 임정빈 등(1995)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무의사소통을 의사소통 빈도, 회피성, 개방성, 일치성 등의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남편의 연령이 30대인 집단과 과거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보는 집단, 앞으로 재정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집단이 재정의사소통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외에도 박명숙(2003)은 결혼년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았으며,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와 액수가 규칙적일수록, 월 저축액이 적을수록, 총 부채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결혼년수, 남편과 부인의 학력,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과 부인의 직업, 가족 수가, 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계 소득과 부채가, 기타 요인으로는 의사소통의 유형과 태도, 현재 가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및 장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등이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3. 결혼만족

#### 1) 결혼만족의 개념

인간의 궁극적 가치목표는 삶의 가치와 행복의 추구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가치는 생활만족을 증대시키는 것 즉 ‘잘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종래의 행복이나 복지의 개념과 유사하다(Hornback, Shaw, 1972; 손현숙, 1995 재인용). 부부는 사회와 가족의 기본이 되는 하위영역이므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가족관계의 만족이 전제가 되어야하며, 가족관계 만족은 결혼만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Olson 등, 1989). 우리나라의 결혼만족 관련 연구는 대다수가 1984년 이후 발표되었는데, 인구·사회학적인 뿐만 아니라 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의사소통, 역할관계 등 다양한 태도요인과 결혼만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척도 타당화,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고찰도 일부 시도되었다. 하지만 결혼만족을 종속변수나 독립변수로 사용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개념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정현숙, 2001).

결혼만족에 대한 개념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결혼만족을 객관적 차원으로 보는 관점과 주관적 차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Lewis 등(1979)은 객관적 측면에서 결혼만족을 한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일치정도로 보았으며, Lenthall(1979)도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결혼상태의 비교에 의해 결혼만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Burr(1973)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결혼만족을 자신의 결혼에 대한 만족, 행복, 즐거움 등의 주관적 반응으로 보았고, Jeries(1979)도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만족감과 행복에 대

한 부부의 주관적 느낌으로 보았다. 가족학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결혼만족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주관적인 측면에 입각한 결혼만족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유계숙 등, 2011).

중년기 기혼 남녀의 결혼만족을 연구한 허미화(2004)는 결혼만족이란 한 개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로서 이러한 태도는 각 개인의 결혼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할 수 있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김효민(2010)은 결혼만족을 결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실제 결혼생활에서 인지하는 만족감의 일치 정도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만족을 연구한 박태영(1998)도 같은 맥락에서 결혼만족을 결혼생활의 전반적 질에 대한 배우자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였다. 맞벌이부부의 직업과 결혼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고정자(1998)는 결혼만족도를 각 배우자가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인지하는 만족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으로 정의했다. 김미령(2009)은 결혼만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부부관계 요소와 부부관계 외적요소로 살펴보았다. 즉 부부관계요소는 여성의 결혼과 남편에 대한 인식, 남편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가사시간, 여가활동을 같이 한 정도로, 부부관계 외적요소는 자녀수, 남편직장, 본인직장, 시대갈등, 시대 및 친정교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농촌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을 연구한 양순미, 정현숙(2006)은 결혼만족은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질, 부부만족 등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결혼생활적응과 결혼만족은 다른 개념임을 지적하며 결혼생활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결혼생활환경, 결혼생활문화 및 규범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결혼생활의 기대에 맞추어 나아가는 과정”으로, 결혼만족은 “각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느끼는

만족스러운 감정으로서 결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만족도를 연구한 손희란, 송선희(2011)는 결혼만족 즉 부부관계만족이란 부부관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했다.

하지만 결혼만족에 대해 이와 다르게 정의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 대다수 연구에서는 만족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불만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 반면, 만족의 개념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부부간 불화의 상태가 존재하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의 구성개념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정현숙, 2001). Fincham 등(1997)은 긍정적 결혼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 결혼에 대한 평가가 다른 차원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과 두 요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결혼만족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견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만족의 개념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느낌으로 자신의 목표, 열망의 달성정도에 대해 현실과의 차이를 적게 느낄수록 만족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박미금, 1994). 임정빈(1990)은 가정관리학 측면에서 만족의 개념은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결과(output) 중 결과로 나타나는데, 즉 주관적인 욕구 충족 혹은 목표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결혼만족 혹은 부부관계만족은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정생활만족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조혜정, 임정빈(1994)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를 일반적만족, 가사수행, 재정상태, 생활표준일치, 부부관계, 자녀관계의 6개 분야로 나누고 자원, 가정관리행동 성향이 가정생활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취업여부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이 부부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경제수준 평가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박미금(1994)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범위를 일반적 만족, 가사수행, 자녀관계, 부부관계, 경제생활, 여가 및 지역사회참여, 자아개념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임정빈 등(1995)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자기 자신, 경제, 가사노동, 여가, 주거, 지역사회 등 8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주부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손현숙(1995)은 남편과의 관계, 경제적 문제, 시댁과의 관계, 생활표준 일치, 의사소통, 가사노동만족, 자녀와의 관계 만족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측정하였으며, 부부갈등과 생활만족을 연구한 김재경, 문숙재(1992)는 결혼 만족, 여가 만족, 재정 만족, 가정관리 만족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 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임정빈, 고보선(1995)은 가정생활만족의 하위영역으로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친정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전반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중년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효영, 김경신(2001)은 생활만족도를 가족원의 의견일치, 재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주부자신의 위치 및 역할, 가사활동만족, 여가·지역사회참여, 일상적인 만족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과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심혜선, 이정우(2001)는 가정생활만족도를 가정생활 전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사노동, 재정상태,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 친척과의 관계, 주부 자신의 위치 및 역할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만족은 가정생활만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결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실제 결혼생활에서 인지하는 만족감의 일치 정도로 정의내리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 2) 결혼만족 관련 요인

결혼생활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기대의 달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충족감인 결혼만족은 사회·인구학적요인, 가계의 경제적 요인, 기타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 중 먼저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 차이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여성 보다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에 관한 허미화(2004)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선웅 등(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자신의 부부친밀감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홍순건, 채규만(2010)의 연구에서도 남편이 아내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결혼생활 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맞벌이 교사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최정혜(2006)의 연구에서도 남교사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은경(200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애주기 상 결혼만족은 U자형의 커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urr, 1970; Rollins, Feldmann, 1970). 즉 20대에 해당하는 결혼 초기에 결혼만족이 높다가 30~40대에 하강한 후, 50대 이후에 결혼만족이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다(박주희, 2015, 재인용). 장선웅 등(2011)의 연구에서는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가 첫 자녀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인 경우보다 부부 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첫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며,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부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생활주기와 결혼만족의 관계가 U자형의 커브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밖에 장은경(2001), 박주희(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연수가 5년 미만 집단, 자녀가 없는 집단의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도 높아지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Blood, Wolfe(1960)의 연구에서는 직업에서의 지위가 낮은 남편과 부인은 결혼만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재경, 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만족 수준이 높았고, 부인과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역시 결혼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임, 최규련(2007)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아내의 직업이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사무·관리전문직인 경우에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주희(2011)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 남편의 지위나 명성 자체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것 이외에 직업에 의한 수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정은애, 2007).

한편, 가계의 경제적인 수준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Campbell(1976), 김재경, 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결혼만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숙선(2001)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선 등(2004)의 연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 교사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을 조사한 최정혜(2006)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결혼만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박주희(2011)의 연구에서도 월평균수입과 결혼만족도 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만족을 조사한 박태영(1998)의 연구 역시 월평균수입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경제적 요인과 결혼만족 간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박미금(1994)은 자원자각도, 소득적정감, 자원기여평가도, 상대적비교감이 부부관계 만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박주희(2015)의 연구에서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생활수준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4.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 1) 부부간 재무의사결정권

부부관계는 남편과 부인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며, 부부 각자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의사도 포함시키게 된다(김효신, 1986). Nickell 등(1976)은 의사결정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하였고, 이정우(1980)는 어떠한 문제 상황 안에서 특정한 문제를 규정하고 발견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홍은(1986)은 부부간 의사결정권이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의 목표에 갈등이 생길 때 서로의 행동에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능력으로 정의했다.

부부간 의사결정권에 관한 관점은 크게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이 있다. 교환이론은 부부간 교환과 호혜성의 관점에서 두 사람 중 더 유용한 자원을 가진 개인이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권력과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자원이론은 자원의 많고 적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는 이론이다(전혜성, 서미아, 2012).

김홍은(198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원과 권력의 양은 차이가 없었지만, 부인의 자원은 권력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부 간 상대적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이나 부인 중 어느 한쪽의 자원이 더 우수하면 자원이 우수한 쪽의 권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부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 대체로 동등한 권력관계와 공동의사결정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경제적 의사결정시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최규련, 1993). 1980년대 이후 국내의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부나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생활, 자녀문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부부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일방참여, 공동참여)를 조사한 연구가 대다수로(이정우, 박은아, 2001)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제반 영역 중 경제생활 분야에 한정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부부간 재무의사결정 유형

부부간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iddleton(1960)은 가정에서의 권력의 소재는 의사결정의 지배 형태로 나타나는데 각 부부에게는 특유한 요인이 있어서 권력의 지배에 영향을 주게 되며, 가정 내의 문화적 또는 비문화적 영향에 의하여 전형적인 의사결정 유형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손현숙, 1995 재인용).

Blood, Wolfe(1960)는 가족관계에서 권력은 교육수준, 금전, 직업적 명성, 사회참여 등과 같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좌우되며,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자원이론에 근거해서, 가정의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남편 우위형, 부인이 주로 결정하는 부인 우위형, 부부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부 공동형, 남편과 부인이 각각 결정하는 자율형으로 구분하였다. 김효신(1986)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따라 의사결정유형이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족의 의사결정 유형은 승점(win-score)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크게 남편주도형, 부인주도형, 공동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외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은 개인이 부부관계에서 더 많

은 부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원이론을 지지하고 있다(신화용, 조병은,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무의사결정의 개념을 재무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치관이나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취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부부간 가계재무의사결정과정에서 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재무의사결정유형을 남편결정형, 부인결정형, 공동결정형으로 구분하였다.

### 3)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과 결혼만족의 관계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간 재무의사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지에 따라 결혼만족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의사결정 참여정도는 부인의 가정생활만족과 관련이 있으며 가정생활 영역별로 부부의 의사결정 참여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이정우, 강기연, 2001; 손현숙, 1995). 이정우, 강기연(2000), 손현숙(1995)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영역은 주로 부인인 결정하고, 자녀, 여가, 재무영역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용, 조병은(2009)의 연구에서는 부부역할 갈등시의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사노동, 자녀양육, 친족유지,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부인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경제영역에서는 부인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부부역할 영역에 따라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가계의 재무문제와 관련된 결정일 경우 대체로 부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영역 중 재무적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므로 가계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간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주로 남편이 의사결정 하는 부부들의 경우, 결혼만족 수준이 공동으로 의사결정 하는 부부와 같거나 혹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로 부인이 의사결정 하는 부부들의 결혼생활이 가장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Blood, Wolfe, 1960). Jeries(1977)는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가계의 부부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Rice(1990)는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의견 일치는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손현숙, 1995 재인용)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만족을 연구한 박태영(1998)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의사결정권이 남성들의 결혼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남편 지배적 태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현숙(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부인의 남편에 대한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은희(2002)의 연구에서도 가사일에 대한 결정에 있어 부부가 동등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평등한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과 결혼만족을 연구한 전해성, 서미아(2012)의 연구에서도 평등한 부부권력이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 1)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의 개념

부부의 가치관과 태도가 유사하다는 것은 부부간 매력이 되는 요인으로 사회교환적 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이었다.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의 사회계층, 연령, 종교, 학력 등의 특성이 유사한 부부간의 결혼을 동질혼으로 개념화했다. 자신과 유사한 배우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교환론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비슷한 자원의 교환을 통한 만족감과 동질혼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규범이나 부모 등의 압력 때문이다(김효민, 2010). 미혼 여교사의 동질혼 추구 경향을 연구한 조병은 등(2012)의 연구에서도 여교사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특성을 지닌 배우자를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 제도 하에서 가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가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여러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지닌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부부 각자의 만족감도 클 것이다(Allen, Thompson, 1984). 부부간에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되면 관심 혹은 가치관에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상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부 각자의 서로 다른 특성이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Winch, 1974)

부부간 유사성은 성격, 태도 및 가치관,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는데, 이중 부부간 태도의 유사성은 태도의 종류에 따라 부부만족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태도의 불일치보다는 자녀양육방식 혹은 부부관계와 관련된 태도가 상이할 경우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즉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가치관에 있어서 부부간 유사성은 일상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재홍, 전명진, 2003)

기존의 부부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성격, 태도, 가치관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부부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지만 부부간 유사성 여부가 부부 관계 즉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김은지, 박재호, 2010), 특히 가계 재무영역에서는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의 개념을 부부간 돈과 재무관리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과 결혼만족의 관계

부부간 유사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허윤미(2001)는 심리적, 신체적 특성과 동질결혼을 고찰한 연구에서 부부간에 교육수준, 사회적 태도, 지능, 가치관 등이 유사한 배우자끼리 결혼하는 동질 결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고재홍, 전명진(2003)은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부부간 결혼가치관 유사성을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는데, 특히 부부간 가치관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남편보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영, 황순택(2012)은 부부의 성격특성별 유사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부부의 유사성은 의존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효민(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유사성을 부부간 가치관, 생활방식, 취미, 성향, 흥미 및 태도 등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부부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부인의 경우에만 부부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박재호(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개인적인 특성이 유사한 경우 즉 부부가 함께 감정지향적이거나 혹은 과업지향적인 집단에서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윤호균, 이선희(2000)의 연구에서도 MBTI 척도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즉 부부간에 유사한 정도가 클수록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부부간에 성격, 가치관 등이 유사한 경우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부부의 경우 결혼만족도 높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6.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의 관계

### 1)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의 관계

가계의 경제상황은 가족원의 삶을 유지하는 기본 자원으로, 가계의 경제적 자원부족과 이로 인해 가계관리자가 느끼는 재무스트레스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갈등에 이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onger, Elder(1990)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상호작용에서 지지적 행동은 감소시키고 적대적 행동을 증가시켜 결혼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가계의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숙 등(2000)은 IMF 이후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생활의 질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경제적 긴장사건 및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부부가 지각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간 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생활의 질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IMF 이후 경제적 고통이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안병철(2000)의 연구에서도 남편이 실직 상태거나 실직 후 재취업한 가계, 남편이 일년 이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부부 갈등의 수준이 높았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계일수록 부부 갈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아내의 상호작용 행동보다 남편의 상호작용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남편이 인지하는 가계의 주 부양자로서의 책임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아내보다 훨씬 더 큰 긴장감과 적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실직은 부부간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갈등

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가 분노적이고 적대적으로 반응하게 된다(Elder, Foster, 1992; 현은민, 2007 재인용)

고지영(2008)은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경제상태와 부부갈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가구경제상황이 열악한 가정일수록 다른 갈등 영역에 비해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의 정도가 제1원인인 여성의 경우 다른 영역의 갈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는 여성은 부부갈등이 없는 여성에 비해 낮은 결혼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간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가계재무관리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가계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부부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정빈 등(1995)은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부채가 없는 집단이 부채를 보유한 집단보다, 경제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경제문제를 경험한 집단보다,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경제여건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에 경제적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황덕순, 정운영(2001)의 연구에서도 재정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거나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집단의 부부간 의사소통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채여부 등과 같은 가계의 객관적 경제상태 및 경제문제 경험도, 경제적 상승감, 경제적 기대감 등과 같은 가계관리자의 주관적 경제부담이 부부간 의사소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심혜선, 이정우(2001)의 연구에서도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주관적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주관적 생활수준 인지도가 낮은 집단 보다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명숙(2003)은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영향요인 중 하나인 가계재무안전성과 부부의 재무관리 의사소통 일치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와 액수가 규칙적일수록, 월 저축액이 적을수록, 총 부채액이 많을수록 재무관리와 관련한 의사소통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신호연, 홍은실(2014)의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의 긍정적인 재무상태는 가계관리자의 재무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부간 재무의사소통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간 재무의사소통은 가계관리자의 재무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재무상태와 재무스트레스는 부적 영향 관계,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재무의사소통도 부적 영향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가계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현재 및 미래 가계경제 상태에 대해 가계관리자의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즉 가계관리자가 재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에는 부부간 효율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가계 재무관리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2)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과 결혼만족의 관계

부부간 갈등은 부족한 자원, 상충되는 목표와 욕구 및 기대 차이로 부부가 결혼생활로부터 경험하는 대립 혹은 충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재무적 스트레스는 그러한 부부갈등의 중요 원천으로 부부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onger 등, 1999).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부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 가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부부간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킨다(임정빈 등, 1995).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은 크게 기능적 유형과 역기능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능적 의사소통은 상대방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 등을 솔직하고 자발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불명확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 등을 말한다(박지은, 2011).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계재무관리 갈등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의사소통영역 중 재무영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한 개념이다. 선행연구 중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결혼만족과 직접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이 부족하므로,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두 요인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연관성 추출이 제한적임을 밝힌다.

결혼만족이 높은 부부가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빈도가 높고,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주고받으며,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성숙, 2006). Berrv, Williams(1987)는 부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의 한 영역인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조혜정, 임정빈(1994)의 연구에서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할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혜선, 이정우(2001)는 도시주부의 결혼만족을 포함하는 가정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으로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가정관리 시 부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의논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재미교포 기혼자들의 결혼만족을 조사한 박태영(1998)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의사소통 문제가 결혼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특히 부인들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이유는 서구의 남성에 비해 한국 남성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남편과 부인의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최규련(1993)의 연구에서도 부부간 대화만족의 영향력이 남편과 부인에게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화만족은 부인의 결혼만족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은경(2001)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불성실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부정적 영향력이 밝혀졌고, 황종귀(2009)의 연구에서도 기혼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적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udmunson 등(2007)은 결혼불안정에 재무적 고통, 감정적 고통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부부가 느끼는 재무적 고통은 감정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재무적·감정적 고통은 모두 부부 갈등을 증가시켜 결혼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옥, 손상희(2018)에 따르면 이러한 재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소득감소, 재무관리방법의 차이, 소비습관의 차이의 3개 범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중 실직 혹은 사업실패로 인한 소득감소가 부부갈등을 표면적

으로 드러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무관리방법의 차이는 주로 재무적 부정직 요인이 많았고, 소비습관의 차이는 부부의 비합리적 소비습관으로 인한 갈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재경, 문숙재(1992)는 부부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고, 금전사용방법, 소비유형, 소득의 주 소비자가 누구인지, 주요 수입원은 누구인지, 금전관리에 대한 태도 등이 서로 상반하는데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돈이 결혼 갈등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돈이 가족의 기본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고, 자신의 안정, 자존감, 타인의 인정과도 관계되는 수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관리 갈등정도에 따라 집단 간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재정관리 갈등정도가 낮은 집단의 결혼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 등(2000)의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사건들은 부부가 느끼는 부부관계 만족을 포함한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생활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간 친밀감을 높여 갈등을 줄이고 결혼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갈등은 부부간 결혼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부부간 재무관리갈등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추론하여 보면 부부간 재무관리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3) 재무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

경제가 성장해 대부분의 개인이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

도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고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인 불만족은 부부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농업 경제 위기 당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경제적 불안과 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권희경, 2009). 국내 선행연구 중 재무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가계자원 및 가계보유 자원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결혼만족을 포함한 가정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다른 연구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재무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 경제상태와 결혼의 질을 연구한 고지영(2008)은 가구소득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을 때 저소득층에서는 영향이 없었고 월평균 300만원대에서부터 가구소득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부부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박미금(1994)은 남편과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자원지각도, 소득적정감, 자원기여평가도, 상대적비교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가계의 소득과 자원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정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타인 혹은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가계의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태도로 가계관리를 행하게 되며, 그 결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부채가 없는 집단에서, 경제문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현재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 5년 후

경제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인지하는 집단에서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혜선, 이정우(2001)의 연구에서도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부채 등과 같은 객관적 가계자원과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 모두 가정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한 이미숙 등(2000)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남편과 부인의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특히 가족 소득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긴장사건 자체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부부간의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장춘미(2009)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인과 남편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부정적 갈등해결행동은 증가하여 부인의 결혼생활만족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반면 남편의 경우는 부인과 달랐는데, 남편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부인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지지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제공하는 부인의 긍정적 지지행동은 감소하고 상호간의 부정적 갈등해결 행동은 증가하여 남편의 결혼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주희(2015)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이 중 가족 및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조사한 현경자(2008)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저소득층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정서적 고통이 높았고, 결혼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부부간 대립과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갈등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는 남편집단에서만 나타났다. 경제적 압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권희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압박 자체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부만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에 있어서는 객관적 자원보유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에서는 재무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부부갈등을 매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및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회·인구학적특성, 가계경제특성, 부부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사회·인구학적특성, 가계경제특성, 부부특성이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간의 인과적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3-1.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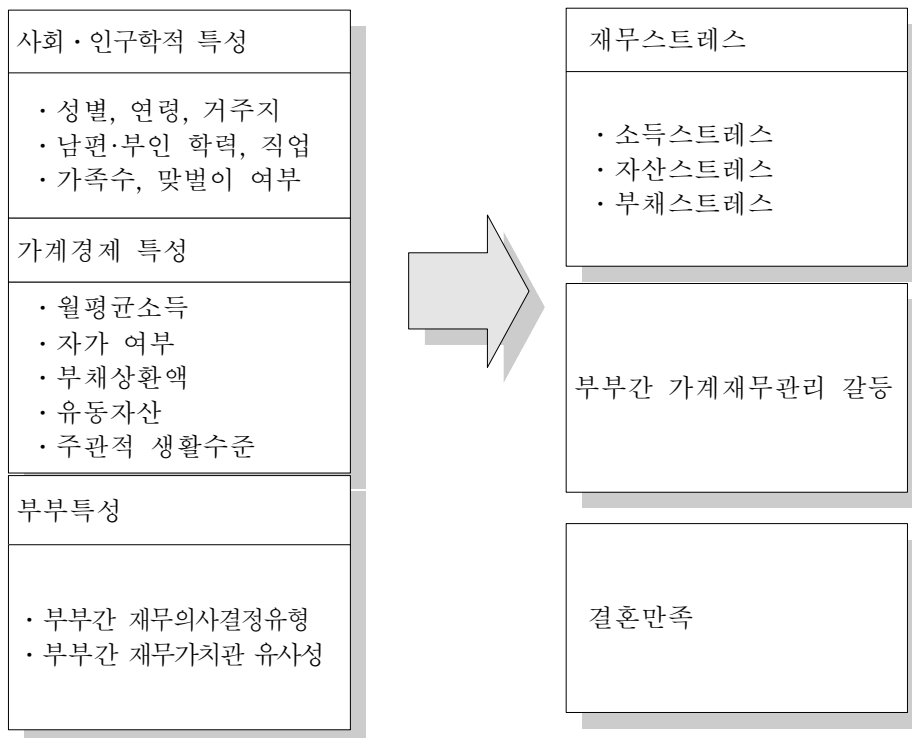
<연구문제4>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구조방정식모형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4-1. 부부간 가계재무의사결정유형(공동결정형/일방결정형)에 따른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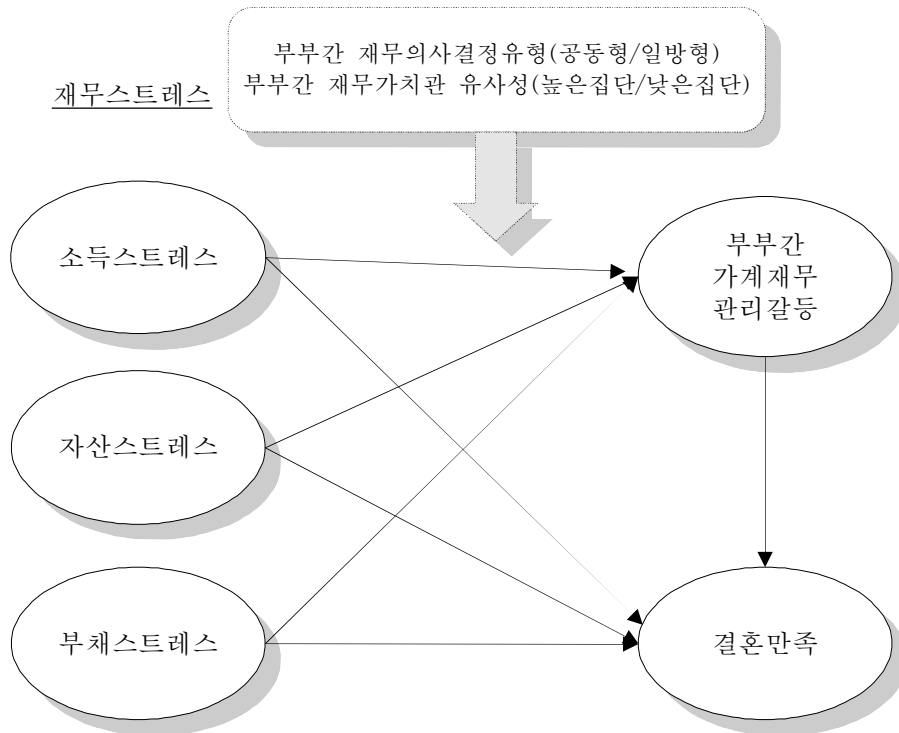
4-2.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높은 집단/낮은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를 도식화하면 <그림1>, <연구문제3>과 <연구문제4>를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1



<그림2> 연구모형2

##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재무스트레스에 관한 문항, 부부간 가계재무 관리 갈등에 관한 문항, 결혼만족에 관한 문항,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재무의사결정유형에 관한 문항,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표1>과 같다

### 1) 재무스트레스

재무스트레스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상황에서 가계의 재무상황이 재정목표나 재정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가계관리자가 인지하는 불안과 갈등, 긴장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을용(2002)이 수정·보완한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총 11개 질문으로 재구성하였다. 재무스트레스는 요인분석을 토대로 소득 단절과 소득 감소를 포함하는 소득스트레스,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 자녀 결혼자금 마련, 노후 대비를 포함하는 자산스트레스, 은행 융자금 상환을 포함하는 부채스트레스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님 1점에서 매우 동의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란 부부 상호간에 가계재무관리와 관련한 생각, 감정,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의 자원, 목표, 욕구, 상호이해의 결여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긴장으로 선행연구(김정훈, 1995; 김정훈, 1995b; 신호연, 2013)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자가 4개의 질문으로 재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님 1점에서 매우 동의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결혼만족

결혼만족은 삶의 전반적인 목표나 기대의 달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충족감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김효민(2010)이 수정, 보완한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결혼생활 만족, 배우자 만족에 관한 2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님 1점에서 매우 동의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이란 재무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치관이나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취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홍보선(1994)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무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문제에 대한 결정은?’의 1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응답은 ① 남편혼자 ② 주로남편 ③ 부부공동 ④ 주로부인 ⑤ 부인혼자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1점~2점은 남편결정형, 3점은 공동결정형, 4점~5점은 부인결정형을 의미한다.

#### 5)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란 부부간 돈과 재무관리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김효민(2010)이 수정, 보완한 설문문항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가계재무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나와 배우자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나와 배우자는 재무관리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다’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님 1점에서 매우 동의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

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바, 0.833으로 권장기준인 0.70을 초과하여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6)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생활수준은 ‘귀하께서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생활수준은?’ 1개 문항에 대해 응답은 ① 상·상 ② 상·중 ③ 상·하 ④ 중·상 ⑤ 중·중 ⑥ 중·하 ⑦ 하·상 ⑧ 하·중 ⑨ 하·하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1~3점은 높음, 4~6점은 중간, 7~9점은 낮음을 의미한다.

###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의 수를 최소로 산출하고 최초 변수들이 지닌 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방식은 문항들의 요인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 1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재무스트레스 전체 11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중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총 10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소득스트레스 0.836, 자산스트레스 0.855, 부채스트레스 0.844로 권장기준인 0.7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구성 변수들의 총 분산은 72.4%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1>과 같다.

다음으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4개 문항, 결혼만족 2개 문항, 전체 6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905, 결혼만족 0.845로 권장기준 0.7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구성변수들의 총 분산은 81.1%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개념	문항 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Cronbach's α
소득 스트레스	1. 수입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824	1.689 (16.88)	.836
	2. 최근 5년간 남편(또는 가장)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직장을 잃어 힘든 적이 있었다	.836		
	3. 남편(또는 가장)의 월수입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852		
자산 스트레스	1. 장차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이 부담이 된다.	.798	4.549 (45.48)	.855
	2. 남편(또는 가장)의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	.807		
	3. 장차(혹은 현재)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이 부담스럽다	.834		
	4.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하다.	.778		
부채 스트레스	1. 우리 집의 자산을 생각할 때 현재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	.912	1.264 (12.63)	.844
	2. 은행(또는 회사)에서 대출한 용자금이 부담스럽다.	.913		
	3. 주변사람(이웃, 친척, 동료 등)에게 빌린 돈이 부담스럽다	.598		
가계재무 관리갈등	1. 우리 부부는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툰다.	.877	3.486 (58.10)	.905
	2. 우리 부부는 가계 재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서로 갈등을 느낀다.	.882		
	3. 우리 부부는 가계의 소비 지출 우선 순위에 대해 자주 의견 충돌이 있다	.905		
	4. 우리 부부는 주택구입 및 저축 투자 문제로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	.813		
결혼만족	2. 나는 결혼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이 충족된다.	.930	1.378 (22.96)	.845
	3. 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903		

## 4. 조사대상 자료 및 분석방법

### 1) 조사자료

본 연구는 리서치전문 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의 비편향 패널로부터 비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6월 7일~6월 17일까지 20부의 예비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6년 6월 28일~7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전국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남,여), 거주지별(서울·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연령별(20대, 30대, 40대, 50대)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총 4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학위논문의 조사 자료는 허경옥, 김숙(2018)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주제로 발전시킨 것으로 동 자료 수집 업무는 담천 소비자연구 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22.0) 프로그램과 AMOS(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특성, 가계경제 특성 및 부부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특성, 가계경제 특성 및 부부특성이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성을 가지고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Anderson & Gerbing, 1988)을 사용하였다. 또한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결혼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공동결정형·일방결정형)과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높은집단·낮은집단)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400명으로 남성이 약 53%로 여성보다 조금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42세로, 30대가 약 35%로 가장 많았고, 40대 약 34%, 50대 약 21%, 20대 약 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단위 거주자가 전체의 약 80%로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 학력은 대졸 이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전체의 약 84%로 나타났으며, 부인 학력은 대졸 이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약 77%로 남편의 경우 보다 약간 낮았다. 남편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남편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약 65%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 약 19%, 비취업 약 7%, 전문관리직 약 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인 직업은 전업주부가 약 4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사무·기술직 약 40%, 판매·서비스 약 11%, 전문관리직 약 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약 84%가 유자녀 가계였으며, 가족형태는 부부중심 가족이 약 90%로 대다수의 가계가 부부중심의 유자녀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본인 가계의 생활수준은 중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77%로 가장 많았고, 생활수준이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도 약 7%로 나타나, 전체의 약 84%는 본인 가계의 생활수준을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결혼생활 지속연수는 평균 약 13년, 가족수는 평균 약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00)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12 (53.0)	거주지	서울/수도권	220 (55.0)
	여성	188 (47.0)		광역시	100 (25.0)
				도단위	80 (20.0)
남편 학력	고졸이하	61 (15.3)	부인 학력	고졸이하	92 (23.0)
	대졸	274 (68.5)		대졸	269 (67.3)
	대학원졸	65 (16.3)		대학원졸	39 (9.8)
연령 (M=41.6) (S.D.=8.59)	20대	35 (8.8)	남편직업	판매/서비스	78 (19.5)
	30대	142 (35.5)		사무/기술	263 (65.8)
	40대	137 (34.3)		전문관리	29 (7.3)
	50대	86 (21.5)		비취업	30 (7.5)
부인직업	판매/서비스	47 (11.8)	주관적 생활수준	높음	31 (7.8)
	사무/기술	163 (40.8)		중간	308 (77.0)
	전문관리	8 (2.0)		낮음	61 (15.3)
	비취업	182 (45.5)			
자녀유무	있음	338 (84.5)	가족형태	부부중심가족	363(90.8)
	없음	62 (15.5)		확대가족	37(9.2)
결혼지속기간 (단위: 년)		13.0(8.89)	가족수 (단위: 명)		3.53(1.05)

## 2) 조사대상자의 가계경제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계경제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3>, <표4>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가계의 가계경제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약 562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01~600만원 이하가 약 36%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도 약 29%에 달해 전체의 약 65% 이상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1~400만원 이하 약 18%, 201~300만원 이하 약 13%, 200만원 이하 약 2%의 순이었다. 한편 가계 월평균 소득을 남편과 부인의 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301~40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약 27%로 가장 많았고, 남편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약 4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42%로 가장 많았고 부인 월평균 소득의 평균값은 약 1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보유형태는 전체의 약 69%가 자가로 나타났으며, 전세 약 23%, 월세 약 6%의 순이었다. 월평균 부채 상환액을 조사한 결과 부채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9%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약 72%가 월평균 부채 상환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부채 상환액의 평균값은 약 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등 가계의 비상시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보유액을 묻는 문항에 전체의 약 75%가 4,000만원 이하로 응답했으며, 유동자산의 평균 보유액은 약 2,8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각각의 문항에 전혀 아님, 아님으로 응답한 경우는 낮음,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보통, 동의로 응답한 경우는 높음, 매우 동의로 응답한 경우는 매우 높음으로 분류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스트레스 중 소득스트레스가 2.3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산스트레스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산영역의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정우, 정진희(1999), 유을용(2002), 김미린, 홍은실(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소득 영역의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노자경(1996), 소득·지출영역의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높

은 계선자, 박혜성(2008)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다.

재무스트레스 중 소득스트레스에서는 평균이 2.39점으로, 전체의 약 87%가 소득스트레스에 대해 보통 이하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높음 혹은 매우 높음은 약 12%로 나타나, 조사대상 가계는 불규칙적인 소득이나 수입의 감소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혜경, 여정성(1999), 이정우, 정진희(1999), 유을용(2002) 등 선행연구에 비해 소득스트레스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본 연구의 표본 성격상 월평균 총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계가 약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반면 자산스트레스는 평균 3.57점으로 재무스트레스 중 가장 높았는데, 전체의 45%가 노후준비 혹은 자녀 결혼자금 마련 등에 대해 높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스트레스는 평균 2.8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전체의 절반 가량인 약 49%는 부채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은 평균 2.60점으로 전체의 62%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낮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가계의 부부간 재무관리갈등도는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결혼만족의 경우는 평균 3.28점으로 보통 약 41%, 높음 약 29%, 매우 높음도 약 5%로 나타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의 수준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은 평균 3.03점으로 전체의 약 64%가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은 공동결정형이 약 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인결정형 약 23%, 남편결정형이 약 1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가계가 재무 분야의 의사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조사대상자의 가계경제 특성 (n=400)

변수	구분	빈도(%)
가계 월평균총소득 (M=562만원 SD=686.89)	200만원 이하	10(2.5)
	201~300만원	52(13.0)
	301~400만원	74(18.5)
	401~600만원	147(36.8)
	601만원 이상	117(29.3)
남편 월평균소득 (M=411만원 SD=526.32)	소득 없음	7 (1.8)
	200만원 이하	31 (7.8)
	201~300만원	101 (25.3)
	301~400만원	111 (27.8)
	401~600만원	101 (25.3)
부인 월평균소득 (M=150만원 SD=312.85)	소득 없음	170 (42.5)
	200만원 이하	87 (21.8)
	201~300만원	76 (19.0)
	301~400만원	41 (10.3)
	401~600만원	18 (4.5)
주택 보유형태	600만원 이상	8 (2.0)
	자가	276 (69.0)
	전세	92 (23.0)
	월세	26 (6.5)
	기타	6 (1.5)
월평균 부채상환액 (M=63만원 SD=74.70)	부채 없음	118 (29.5)
	50만원 이하	74 (18.5)
	51~100만원	97 (24.3)
	101~150만원	52 (13.0)
	150만원 이상	59 (14.8)
유동자산 (M=2,829만원 SD=2,784.4)	500만원 이하	49 (12.3)
	501만원 ~2000만원	124 (31.0)
	2001만원 ~4000만원	127 (31.8)
	4001만원 ~6000만원	45 (11.3)
	6000만원 이상	55 (13.8)

<표4> 주요변수 특성 (n=400)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소득 스트레스 (M=2.39 S.D.=1.07)	낮음	265 (66.3)	부채 스트레스 (M=2.83) S.D.=1.08)	낮음	199 (49.8)
	보통	86 (21.5)		보통	118 (29.5)
	높음	43 (10.8)		높음	68 (17.0)
	매우높음	6 (1.5)		매우높음	15 (3.8)
자산 스트레스 (M=3.57 S.D.=0.95)	낮음	87 (21.8)	부부간 가계재무 관리갈등 (M=2.60 S.D.=0.88)	낮음	249 (62.3)
	보통	132 (33.0)		보통	105 (26.3)
	높음	146 (36.5)		높음	44 (11.0)
	매우높음	35 (8.8)		매우높음	2 (0.5)
결혼만족 (M=3.28) S.D.=0.96)	낮음	96 (24.0)	부부간 재무 가치관 유사성 (M=3.03 S.D.=0.95)	낮음	142 (35.5)
	보통	165 (41.3)		보통	150 (37.5)
	높음	118 (29.5)		높음	94 (23.5)
	매우높음	21 (5.3)		매우높음	14 (3.5)
부부간 재무의사 결정유형	남편결정형	75 (18.8)			
	공동결정형	230 (57.5)			
	부인결정형	95 (23.8)			

## 2. 가계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 1) 가계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차이 검증

기혼가계의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가 조사대상자의 가계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나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test)을 수행하였다.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차이 검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소득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소득스트레스의 수준은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40대보다는 50대가 느끼는 소득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 학력은 대졸 및 대학원인 집단보다는 고졸 이하 집단이 느끼는 소득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집단의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대졸, 대학원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직업의 경우 사무/기술 및 전문관리 직군에 비해 판매/서비스 및 비취업자 집단의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고, 부인직업의 경우 판매/서비스 직군의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고, 전문관리 직군의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산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자산스트레스 수준은 남편 학력, 부인 학력, 부인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학력이 대학원졸인 경우 보다는 대졸 및 고졸이하 집단의 자산 부담 수준이 높았으며, 부인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집단의 자산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대졸, 대학원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직업의 경우는 전문관리 직군에 비해 여타 집단 모두의 자산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학력이 높은 전문직 고소득 집단 이외에는 대다수의 가계가 장래의 자녀교육비나 은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여 진다. 끝으로 부채스트레스가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득·자산·부채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변수	구분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		
		평균	t값/F값	D	평균	t값/F값	D	평균	t값/F값	D
성별	남성	2.25	-2.72**		3.63	1.35		2.75	-1.46	
	여성	2.54		3.50	2.91					
연령	20대	2.23	7.21***	a	3.43	0.95		3.00	0.83	
	30대	2.16		a	3.52		2.88			
	40대	2.40		a	3.67		2.72			
	50대 이상	2.81		b	3.53		2.84			
거주 지역	서울/수도권	2.38	0.31		3.57	0.41		2.84	0.33	
	광역시	2.46		3.63	2.88					
	도단위	2.33		3.50	2.75					
남편 학력	고졸이하	2.81	7.80***	a	3.66	3.24**	a	3.06	1.74	
	대졸	2.37		b	3.62		a	2.80		
	대학원졸	2.08		b	3.30		b	2.72		
부인 학력	고졸이하	2.72	7.86***	a	3.84	6.78**	a	2.98	2.11	
	대졸	2.34		b	3.53		b	2.81		
	대학원졸	1.97		c	3.22		c	2.57		
남편 직업	판매/서비스	2.86	10.71***	a	3.62	0.24		3.00	1.13	
	사무/기술	2.19		b	3.58		2.77			
	전문관리	2.41		b	3.47		2.78			
	비취업	2.87		a	3.51		2.97			
부인 직업	판매/서비스	2.72	2.75*	a	3.81	5.20**	a	3.05	1.34	
	사무/기술	2.27		ab	3.40		a	2.74		
	전문관리	1.96		b	2.88		b	2.50		
	비취업	2.43		ab	3.69		a	2.86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 ②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차이 검증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라 재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먼저, 소득스트레스가 여러 가계경제 특성 및 기타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월평균소득, 주택보유여부, 부채상환액유무, 주관적 생활수준,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은 집단이 느끼는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자가보유자 보다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부채상환액이 있는 경우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생활수준을 높음으로 인식한 집단과 중간으로 인식한 집단보다 주관적 생활수준을 낮다고 인식한 집단의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 재무의사결정 유형이 부인결정형인 집단의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스트레스에 있어서 가계경제 특성 및 부부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월평균소득, 부채상환유무,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산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상환액이 없는 가계에 비해 상환액이 있는 가계의 자산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자산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중간인 집단,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채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자산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월평균소득, 부채상환유무, 주관적 생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집단의 부채 부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상환액이 있는 가계의 경우 부채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높았으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집단 보다 부채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스트레스는 여성, 50대 이상,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하, 남편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군이거나 비취업자인 경우, 부인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군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전/월세거주자인 경우, 부채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 부부간 의사결정유형이 부인결정형인 경우에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스트레스의 경우는 남편과 부인 학력 고졸이하, 부인의 직업이 전업주부 및 판매/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부채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산스트레스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스트레스의 경우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부채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부채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른 소득·자산·부채스트레스차이 검증

변수	구분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		
		평균	t값/F값	D	평균	t값/F값	D	평균	t값/F값	D
월평균 소득	높음	2.14		a	3.25	a		2.58		a
	중간	2.32	11.12** *	a	3.66	10.85** *	b	2.84	6.01**	ab
	낮음	2.80		b	3.80		b	3.09		b
주택 보유	자가	2.31			3.60			2.79		
	전/월세/기타	2.56	-2.16*		3.51	0.81		2.90	-0.90	
부채상환 유무	상환액없음	2.17			3.36			1.97	-11.81**	
	상환액있음	2.47	-2.55*		3.65	-2.80**		3.19	*	
주관적 생활 수준	높음	2.16		a	3.03		a	2.37		a
	중간	2.28	14.64** *	a	3.52	14.27** *	b	2.75	15.52** *	a
	낮음	3.05		b	4.06		c	3.48		b
재무 가치관 유사성	높음	2.36			3.58			2.74		
	중간	2.30	1.39		3.46	1.87		2.76	1.88	
	낮음	2.50			3.68			2.97		
재무의 결정 유형	남편결정형	2.41		ab	3.61			2.81		
	공동결정형	2.29	3.39***	a	3.54	0.30		2.78	0.75	
	부인결정형	2.62		b	3.62			2.95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사후검정

참고 :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 2) 가계 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차이 검증

기혼가계의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이 조사대상자의 가계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나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Test)을 수행하였다. 집단 간 차이비교 결과는 <표7><표8>과 같다.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차이 검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의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는 <표7>과 같다. 먼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수준은 남편 학력, 부인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대학원졸인 경우보다 고졸이하인 경우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 학력도 남편 학력과 동일하게 대학원졸에 비해 고졸이하의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 학력이 대졸 및 대학원졸인 경우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학력이 고졸이하 보다 대졸이상 집단에서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직업은 판매·서비스직군 보다 사무·기술직군이나 전문관리직에서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차이 검증

변수	구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평균	t값/F값	D	평균	t값/F값	D
성별	남성	2.54			3.45		
	여성	2.64	-1.11		3.08	3.84***	
연령	20대	2.57			3.47		
	30대	2.52			3.36		
	40대	2.61	0.60		3.27	2.18	
	50대 이상	2.68			3.07		
거주 지역	서울/수도권	2.54			3.28		
	광역시	2.71	1.29		3.20	0.59	
	도단위	2.60			3.36		
남편 학력	고졸이하	2.82		a	2.74		a
	대졸	2.58	3.09*	ab	3.32	13.79***	b
	대학원졸	2.43		b	3.58		b
부인 학력	고졸이하	2.81		a	2.95		a
	대졸	2.55	3.78*	ab	3.35	7.87***	b
	대학원졸	2.43		b	3.53		b
남편 직업	판매/서비스	2.70			2.85		a
	사무/기술	2.59			3.41		b
	전문관리	2.43	0.87		3.43	7.77***	b
	비취업	2.48			3.06		ab
부인 직업	판매/서비스	2.67			3.24		
	사무/기술	2.52			3.33		
	전문관리	2.69	0.73		3.75	1.04	
	비취업	2.64			3.22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사후검정

참고 :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②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차이 검증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라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먼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여러 가계경제 특성 및 부부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주관적 생활수준,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생활수준을 낮게 인식한 집단의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의 경우보다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낮은 집단의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만족이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평균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의 소득이 결혼만족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Campbell, 1976; 김재경, 문숙재, 1992; 홍숙선, 2001; 정기선, 2004)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중간인 집단, 낮은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와의 유사성이 높은 부부의 경우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대다수의 선행연구(김효민, 2010; 김은지, 박재호, 2010; 윤호균, 이선희, 2000; 황순택, 20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부인결정형인 경우보다 남편결정형과 공동결정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이 의사결정 하는 부부들의 경우 결혼만족 수준이 공동의사결정하는 부부와 같거나 더 높은 반면 주로 부인이 의사결정하는 부부의 결혼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Blood, Wolfe(196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가계의 의사결정시 최종 의사결정을 부인이 많이 할수록 의사결정부담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보다는 대가로 간주되어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여진다(신화용, 조병은, 2009).

이상의 차이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의 경우, 남성인 경우,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사무·기술직군이거나 전문·관리직일 경우, 평균소득이 높은 집단,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부간 재무의사 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 남편결정형인 가계의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가계경제 특성, 부부특성에 따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차이 검증

변수	구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평균	t값/F값	D	평균	t값/F값	D
월평균 소득	높음	2.59			3.47		a
	중간	2.51	2.40		3.28	5.10**	ab
	낮음	2.76			3.05		b
주택 보유	자가	2.56			3.30		
	전/월세/기타	2.67	-1.07		3.22	0.82	
부채상환 유무	상환액있음	2.49			3.32		
	상환액없음	2.63	-1.42		3.26	0.54	
주관적 생활 수준	높음	2.62		ab	3.53		a
	중간	2.53	4.67*	ab	3.30	3.20*	ab
	낮음	2.90		b	3.03		b
부부간 재무 가치관 유사성	높음	2.38		a	3.82		a
	중간	2.52	9.80***	a	3.43	566.39***	b
	낮음	2.84		b	2.70		c
부부간 재무의사 결정유형	남편결정형	2.66			3.24		a
	공동결정형	2.52	1.91		3.41	7.33**	a
	부인결정형	2.72			2.97		b

\* p < .05, \*\* p < .01, \*\*\* p < .001, Duncan 사후검정

참고 :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 3. 가계 특성이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가계 특성이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9>, <표10>과 같다.

#### 1) 가계특성이 재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소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 남편 직업, 자가 보유여부, 월평균소득, 부채상환액, 주관적 생활수준이 소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20~30대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주택을 보유한 가계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상환액이 적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중간 집단인 경우에 소득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자산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은 가족수, 월평균소득, 주관적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수가 많을수록 자산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산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이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산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부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은 월평균소득, 부채상환액, 주관적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상환액이 높을수록 부채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채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계특성이 재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부부특성으로 나누어 각 요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 중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소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에 비해 20~30대의 소득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지출과 자산영역에서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무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보고한 노자경(1996)의 연구나 Varcoe(199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지만, 유을용, 계선자(2003), 이정우, 정진희(1999)의 연구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50대 이상의 경우 생애주기 상 자녀의 대학교육비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많은 소득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했거나 혹은 곧 은퇴를 해야 하는 시기로 20~30대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기타 직업군에 비해 소득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정우, 정진희(1999), 유을용, 계선자(2003), 김미린, 홍은실(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이 재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 지출, 자산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유을용, 계선자(2003), 김미린, 홍은실(2010), 정혜경, 여정성(1999), 고보선, 이영호(1995), 이정우, 최덕경(1992)의 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계의 경우 소득스트레스를 더 적게 인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유을용, 계선자(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계의 부채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미린, 홍은실(2010)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부채상환액이 높

아질수록 소득, 부채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부채의 수준보다 부채의 유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의 수준 차이가 많았으며, 부채는 소득부족의 결과로 부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상당 정도 소비지출의 유보 또는 포기를 경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노자경(1996)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거나 혹은 중간인 가계는 소득, 자산, 부채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자원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합산한 경제적 안정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자산, 소득영역 모두에서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노자경(1996)의 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9> 가계 특성이 소득·자산·부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 종속변수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성별(남성=1)	-.20	-.09	.16	.08	-.13	-.06
연령(20~30대=1)	-.58	-.26***	.04	.02	.04	.02
연령(40대=1)	-.21	-.09	.21	.10	.05	.02
거주지(서울,광역시=1)	.13	.05	.16	.07	.16	.06
남편 학력(대졸=1)	-.06	-.02	.02	.01	-.03	-.01
남편 직업(전문직=1)	-.38	-.16**	.10	.04	-.01	-.00
가족수	.00	.00	.14	.16**	.05	.05
맞벌이여부(맞벌이=1)	.03	.01	.00	.00	-.04	-.02
자가여부(자가=1)	-.29	-.12*	.11	.05	-.17	-.07
월평균소득(로그값)	-.36	-.18**	-.29	-.16**	-.22	-.11*
부채상환액(로그값)	.07	.14**	.03	.08	.27	.51***
유동자산(로그값)	-.00	.00	-.04	-.05	-.04	-.04
주관적생활수준(높은 집단=1)	-.38	-.09	-.74	-.21**	-.54	-.13*
주관적생활수준(중간 집단=1)	-.46	-.18**	-.45	-.20**	-.49	-.19***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04	.04	-.03	-.03	-.03	-.03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공동결정형=1)	-.04	-.02	.01	.00	.03	.01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부인결정형=1)	.08	.03	.13	.06	.01	.00
상수	5.482		5.058		4.112	
R <sup>2</sup>	0.226		0.157		0.364	
F값 및 유의도	6.579***		4.178***		12.834***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 VIF값은 모두 10미만임

## 2) 가계 특성이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 요인을 조사한 결과, 주관적 생활수준과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 인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인 집단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수준이 낮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보다 현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임정빈 등 (1995)과 황덕순, 정운영(2001)의 연구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 연령, 남편 학력,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허미화, 2004; 장선웅 등, 2011; 홍순건, 채규만, 2010; 최정혜, 2006; 장은경, 2001). 또한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에 비해 20~30대인 경우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선웅(2011), 장은경(2001)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남편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가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김재경, 문숙재(1992), 최문임, 최규련(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외에도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요인의 경우 가계재무관리갈등에는 부적인 영향을, 결혼만족에는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간 개인적 특성, 교육수준, 태도 및 가치관이 유사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재홍, 전명진(2003), 김효민(2010), 김은지, 박재호(2010) 등

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표10> 가계 특성이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성별(남성=1)	-.07	-.04	.21	.11*
연령(20~30대=1)	-.13	-.07	.24	.12*
연령(40대=1)	-.04	-.02	.14	.07
거주지(서울.광역시=1)	-.01	-.00	-.07	-.03
남편 학력(대졸=1)	-.18	-.07	.28	.10*
남편 직업(전문직=1)	.11	.05	.15	.07
가족수	.06	.07	-.03	-.03
맞벌이여부(맞벌이=1)	-.09	-.05	.09	.04
자가여부(자가=1)	-.10	-.05	.07	.03
월평균소득(로그값)	.07	.04	.05	.02
부채상환액(로그값)	.01	.04	.01	.03
유동자산(로그값)	-.02	-.03	.00	.01
주관적생활수준(높은 집단=1)	-.17	-.05	.02	.00
주관적생활수준(중간 집단=1)	-.29	-.14*	.00	.00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17	-.19***	.48	.48***
부부간재무의사결정유형(공동결정형=1)	-.05	-.03	-.00	-.00
부부간재무의사결정유형(부인결정형=1)	.05	.02	-.21	-.09
상수	3.159		0.881	
R <sup>2</sup>	0.089		0.362	
F값 및 유의도	2.189**		12.758***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 VIF값은 모두 10미만임

#### 4.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간의 구조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 ① 모형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11>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기준부합지수는 GFI, AGFI, IFI, CFI 값은 0.9 이상, RMR, RMSEA 값은 0.08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카이제곱( $\chi^2$ )의 경우에는 카이제곱( $\chi^2$ )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1 이상 3 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조철호, 2015). 분석결과 GFI=0.932, AGFI=0.900, IFI=0.961, CFI=0.961, RMR=0.082, RMSEA=0.063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평가되었으며, 카이제곱( $\chi^2$ )을 자유도로 나눈 값도 2.59로 1에서 3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의 기준부합지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검증

$\chi^2$	<i>df</i>	GFI	AGFI	IFI	CFI	RMR	RMSEA
241.014	93	.932	.900	.961	.961	.082	.063

② 집중타당성 검증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과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표12>와 같다. 먼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Anderson, Gerbing, 1988),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모두 0.6 이상이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인과적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CR값은 0.7 이상, AVE값은 0.5 이상 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Hair 등, 1995) 변수들이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므로 개별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12>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분석

잠재 변수	측정변수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C. R	AVE
소득 스트레스	소득스트레스1	0.71	.72	0.04	15.34***	0.78	0.54
	소득스트레스2	0.88	.75	0.05	16.08***		
	소득스트레스3	1	.90	-	-		
자산 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1	0.73	.61	0.05	12.83***	0.80	0.51
	자산스트레스2	0.95	.82	0.05	18.95***		
	자산스트레스3	0.83	.67	0.05	14.72***		
	자산스트레스4	1	.89	-	-		
부채 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1	0.97	.93	0.03	26.26***	0.82	0.61
	부채스트레스2	1	.93	-	-		
	부채스트레스3	0.55	.56	0.04	12.49***		
부부간 가계 재무관리 갈등	재무갈등1	1.01	.86	0.04	23.09***	0.91	0.71
	재무갈등2	1.04	.88	0.04	23.73***		
	재무갈등3	1	.87	-	-		
	재무갈등4	0.89	.73	0.05	17.58***		
결혼만족	결혼만족1	0.74	.76	0.08	9.02***	0.85	0.75
	결혼만족2	-	.95	-	-		

개념신뢰도(C.R)=( $\sum$ 표준추정치)<sup>2</sup>/[( $\sum$ 표준추정치)<sup>2</sup>+(측정변수의오차항)] $\geq$ 0.7

평균분산추출값(AVE)=( $\sum$ 표준추정치<sup>2</sup>)/[( $\sum$ 표준추정치)<sup>2</sup>+(측정변수의오차항)] $\geq$ 0.5

\* p < .05, \*\* p < .01, \*\*\* p < .001

③ 판별타당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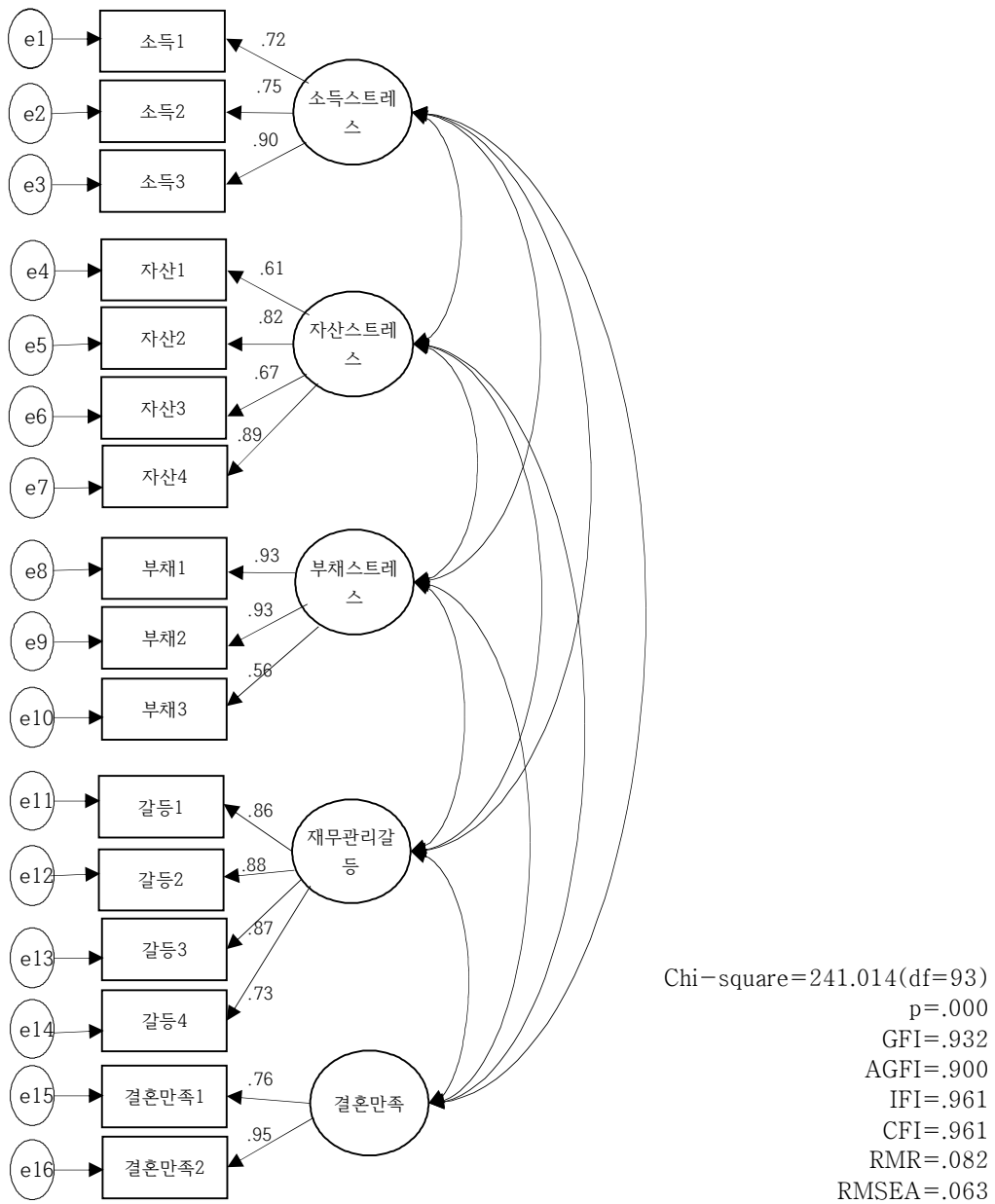
측정모형의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과 상관계수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13>과 같다. 조사결과 모든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Larcker, 1981).

<표13>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분석

	소득 스트레스	자산 스트레스	부채 스트레스	부부가계 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평균 (표준편차)
소득 스트레스	1.00 [0.734]					2.39 (1.07)
자산 스트레스	0.351	1.00 [0.714]				3.57 (0.95)
부채 스트레스	0.446	0.457	1.00 [0.781]			2.83 (1.08)
부부가계 재무관리갈등	0.379	0.298	0.316	1.00 [0.842]		2.60 (0.89)
결혼만족	-0.269	-0.148	-0.198	-0.343	1.00 [0.866]	3.28 (0.96)

주) 모든 상관계수는  $\alpha=0.01$ 에서 유의함,

[ ]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양의 제곱근



<그림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 2)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 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EM)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14>, <그림4>와 같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241.014(df=93)$ , RMR=0.082. GFI=0.932 AGFI=0.900 NFI=0.939 CFI=0.961 RMSEA=0.063로 전반적으로 자료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스트레스 중 소득스트레스와 자산스트레스는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스트레스는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스트레스와 자산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가계의 경우 부부간 재무문제에 있어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무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 모두 결혼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은 결혼만족에 통계적으로 강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무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부간에 재무문제와 관련한 정서적 갈등의 발생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 ②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해

한편,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해하였고, 결과는 <표15>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스트레스 경로계수의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 재무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이르는 4개 경로 중 소득스트레스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자산스트레스와 부채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분해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스트레스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직접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득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이라는 변수는 소득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일 소득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유발된다면, 이러한 갈등을 통해 결혼만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결혼만족이라는 변수는 가계의 재무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받는 변수라기보다는 재무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부부간 갈등에 더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압박 자체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편과 부인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밝힌 권희경(200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14> 구조방정식 모형 잠재변수 간 경로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검증 결과
소득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338***	0.047	5.435	유의함
자산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172**	0.058	2.606	유의함
부채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033	0.044	0.539	
소득스트레스 → 결혼만족	-0.122	0.059	-1.876	
자산스트레스 → 결혼만족	0.013	0.071	0.197	
부채스트레스 → 결혼만족	-0.042	0.053	-0.668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 결혼만족	-0.338***	0.071	-5.767	유의함

모형적합도 : Chi-square(df)=241.014(93)\*\*\* RMR=0.082.  
GFI=0.932. AGFI=0.900 NFI=0.939 CFI=0.961 RMSEA=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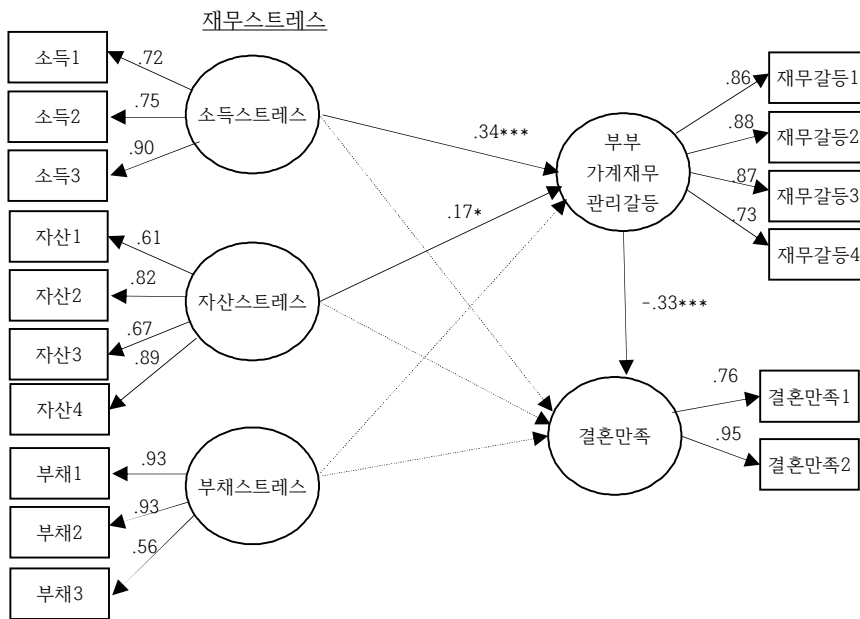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15> 재무스트레스,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효과분해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소득스트레스 → 결혼만족	-0.122	-0.114*	-0.236*
자산스트레스 → 결혼만족	0.013	-0.058	-0.045
부채스트레스 → 결혼만족	-0.042	-0.011	-0.053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함



<그림4>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 5.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른 조절효과검증

### 1)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multi-group SEM)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먼저 부부간 재무의사결정 유형을 공동결정형과 일방결정형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 간 대응하는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문제에 대한 결정은?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부부공동으로 응답한 경우는 공동결정형(n=230)으로, 남편혼자, 주로남편으로 응답한 남편결정형과 주로부인, 부인혼자로 응답한 부인결정형의 경우를 일방결정형(n=170)으로 분류하였다.

#### ① 측정동일성 검증

부부간 가계재무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집단과 일방결정형인 집단 간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전체 요인을 포함한 측정모형이 두 집단 간에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과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안된 측정모델의 적합지수는 모두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1.963$ , RMR=0.087, CFI=0.953, IFI=0.954, RMSEA=0.049). 다음으로 두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과 비제약모델을 비교하는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16>과 같다.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델과 제약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한 결과, 카이자승( $\chi^2$ )값의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Delta \chi^2 = 16.774$ ,  $df=11$ ,  $p<.115$ )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Myers et al. , 2000, Mullen, 1995, : 우종필, 2014 재인용).

<표16> 재무의사결정 측정모형의 등가성 확인

	chi-square	df	RMSEA	AIC	CFI	$\Delta \chi^2$	p
비제약모델	365.134	186	0.049	537.134	0.953		
제약모델	381.908	197	0.049	531.908	0.952	16.774	0.115

## ② 조절효과 검증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집단과 일방결정형인 집단 간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완전한 측정 동일성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7>과 같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지수가 모두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 $\chi^2 / df=1.963$ ,  $RMR=0.087$ ,  $CFI=0.953$   $IFI=0.954$ ,  $RMSEA=0.049$ ) 전반적으로 자료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집단과 일방결정형인 두 집단 간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모델과 대응되는 각각의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델의 카이자승( $\chi^2$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7개의 경로 중에서 부채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소득스트레

스가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먼저 부채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부부간 재무의사결정 유형이 공동결정형인 집단의 경우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일방결정형 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가계재무결정 유형이 일방형인 경우에는 가계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부간 재무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스트레스가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집단에서는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지만, 일방형인 집단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강한 부(-)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일방결정형인 경우에는 소득스트레스를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시에 대화를 통해 공동의사결정을 한다면 가계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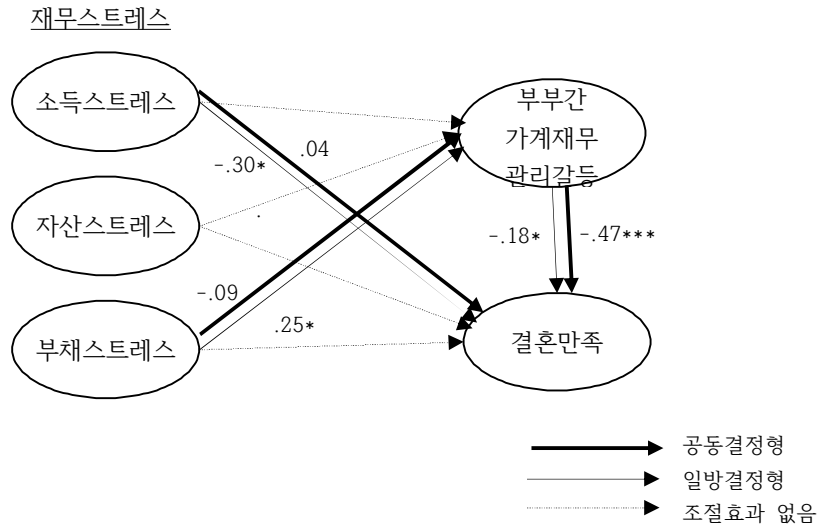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일방결정형 집단보다 공동결정형 집단에서 더 강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소 재무문제를 부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계의 경우 재무관리갈등이 발생할 경우 결혼만족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7>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검증

비제약 모델		표준화계수 <sup>1</sup>		x <sup>2</sup>	df	Δx <sup>2</sup>	Δdf	p
		공동결정형	일방결정형					
				365.134	186			
제약 모델 (경로 제약)	소득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369***	.223*	366.602	187	1.468	1	.226
	자산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203*	.110	365.511	187	0.377	1	.539
	부채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91	.255*	372.321	187	7.187	1	.007
	소득스트레스 → 결혼만족	.043	-.305**	371.466	187	6.333	1	.012
	자산스트레스 → 결혼만족	-.012	.036	365.241	187	0.107	1	.743
	부채스트레스 → 결혼만족	-.081	-.002	365.454	187	0.320	1	.572
	가계재무관리 갈등 → 결혼만족	-.471***	-.181*	369.280	187	4.146	1	.042

\* p < .05, \*\* p < .01, \*\*\* p < .001

<sup>1</sup> 비제약모델에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그림5>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 결과

## 2)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multi-group SEM)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먼저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n=258)과 낮은 집단(n=142)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 간 대응하는 경로 계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① 측정동일성 검증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전체 요인을 포함한 측정모형이 두 집단 간에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과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안된 측정모형의 적합지수는 대체로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1.952$ ,  $RMR=0.093$ ,  $CFI=0.952$ ,  $IFI=0.953$ ,  $RMSEA=0.049$ ). 다음으로 두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과 비제약모델을 비교하는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18>과 같다.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델과 제약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한 결과, 카이자승( $\chi^2$ )값의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Delta \chi^2 = 8.729$ ,  $df=11$ ,  $p < .647$ )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Myers 등, 2000; Mullen, 1995; 우종필, 2014 재인용).

<표18> 재무가치관유사성 측정모형의 등가성 확인

	chi-square	df	RMSEA	AIC	CFI	$\Delta x^2$	p
비제약모델	362.985	186	0.049	534.985	0.952		
제약모델	371.714	197	0.047	521.714	0.953	8.729	0.647

② 조절효과 검증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완전한 측정 동일성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9>와 같다. 먼저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지수가 모두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 $\chi^2 / df=1.952$ , RMR=0.093, CFI=0.952 IFI=0.953, RMSEA=0.049) 전반적으로 자료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모델과 대응되는 각각의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델의 카이제곱( $\chi^2$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7개의 경로 중에서 소득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자산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 부채스트레스에서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먼저 소득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집단의 경우 더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자산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갈등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에는 반대로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 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재무스트레스와 장래의 재무스트레스에 대한 부부의 대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소득감소로 인한 스트레스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유사한 부부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안겨주어 갈등을 유발하는 반면, 자산과 관련된 장래에 대한 재무 계획에 있어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부부의 갈등 수준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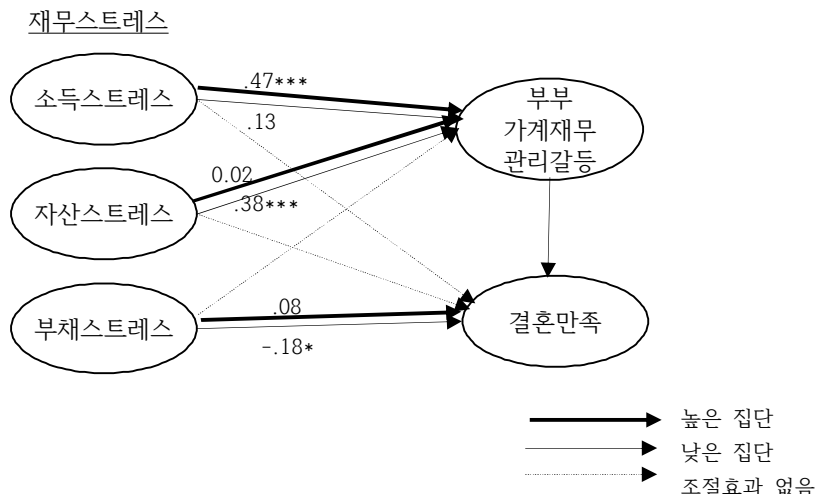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채스트레스가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강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에 돈 문제와 가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대화를 통해 둘 사이의 가치관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면 비록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19>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검증

비제약 모델		표준화계수 <sup>1</sup>		x <sup>2</sup>	df	Δx <sup>2</sup>	Δdf	p
		높은 집단	낮은 집단					
				362.985	186			
제약 모델 (경로 제약)	소득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470***	0.130	369.819	187	6.834	1	0.009
	자산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029	0.382***	369.893	187	6.908	1	0.009
	부채스트레스 →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0.033	-0.002	363.055	187	0.070	1	0.791
	소득스트레스 → 결혼만족	-0.049	-0.149	363.537	187	0.552	1	0.458
	자산스트레스 → 결혼만족	0.069	-0.008	363.331	187	0.346	1	0.556
	부채스트레스 → 결혼만족	0.081	-0.189*	368.432	187	5.447	1	0.020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 결혼만족	-0.256***	-0.237*	363.073	187	0.089	1	0.766

\* p < .05, \*\* p < .01, \*\*\* p < .001

<sup>1</sup> 비제약모델에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그림6>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최근 우리사회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고용불안 속에서 가계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개별 가계의 경제적 불안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계 내·외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안 요소는 부부 간 재무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해 결혼만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불안상황에서 가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계관리자가 인지하는 재무스트레스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결혼만족 간의 관계 및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스트레스를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과 결혼만족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회·인구학적 측면 및 가계의 경제적 자원보유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과 재무가치관 유사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이들 변수의 조절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검증 결과 소득스트레스는 여성, 50대 이상,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하, 남편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군이거나 비취업자인 경우, 부인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군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전·월세거주자인 경우, 부채상환액이 있는 집단,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 부부

간 의사결정유형이 부인결정형인 경우에 소득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스트레스의 경우는 남편과 부인 학력 고졸이하, 부인의 직업이 전업주부 및 판매·사무·서비스직 종사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부채상환액이 있는 집단,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산스트레스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스트레스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 부채상환액이 있는 집단,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의 부채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의 경우, 남성인 경우, 남편과 부인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사무·기술직군이거나 전문·관리직일 경우, 평균소득이 높은 집단,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가계와 남편결정형 가계의 결혼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20~30대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주택을 보유한 가계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높은 경우, 부채상환액이 적은 경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중간 집단인 경우에 소득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족수가 많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자산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에서 자산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채상환액이 높을수록 부채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이 부채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주관적 생활수준 인식이 중간이 집단에서, 그리고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 높을수록 부부간 재무관리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 20~30대인 경우, 남편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소득스트레스와 자산스트레스는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스트레스는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소득스트레스, 자산스트레스, 부채스트레스 모두 결혼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은 결혼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스트레스 경로계수의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 재무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변수로 결혼만족에 이르는 3개 경로 중 소득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나타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고, 자산스트레스와 부채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곱째,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공동결정형인 집단과 일방결정형인 두 집단 간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 7개의 경로 중에서 부채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소득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여덟째,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조절효과

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 7개의 경로 중에서 소득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와, 자산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 부채스트레스에서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차이검증결과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이 부인결정형인 경우보다 남편결정형과 공동결정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의사결정 하는 부부들의 경우 결혼만족 수준이 공동 의사결정하는 부부와 같거나 더 높은 반면, 주로 부인이 의사결정하는 부부의 결혼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Blood, Wolfe(196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가계의 의사결정시 최종 의사결정을 부인이 많이 할수록 의사결정 부담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관계에서 보상보다는 대가로 간주되어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신화용, 조병은, 200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계재무영역에서는 대다수의 가계에서 주로 공동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재무의사결정시 의사결정의 부담을 부인 일방에게 전가시킨다면 부인의 정서적 만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 전 부부교육 및 가계재무교육시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의 영향을 살펴보면 20~30대에 비해 50대 이상에서 소득 부담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생애주기 상 자녀의 대학교육비나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많은 소득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혹은 곧 은퇴해야 하는 시기로 젊은 층에 비해 소득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주택 보유 가계의 경우 재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고보선, 이영호, 1995; 이정우, 최덕경, 1992; 여정성, 1999; 유을용, 계선자, 2003; 김미린, 홍은실, 2010) 이는 가계의 객관적 경제 상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경제수준 이외에 가계관리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생활수준 요인도 재무스트레스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재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계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재무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계재무교육에서는 재무지식뿐만 아니라 가계재정 상황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부간 가계재무관리갈등,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경우 부부간 가계재무관리갈등 수준은 낮아지고 결혼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간 개인적 특성, 교육수준, 태도 및 가치관이 유사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고재홍, 전명진, 2003; 김효민, 2010; 김은지, 박재호, 2010)와 같은 맥락으로, 부부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재무가치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줄인다면 재무관리 갈등은 줄고 삶의 만족감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가 주택보유, 총소득, 부채상환액, 유동자산 등 객관적 경제수준은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일련의 연구와는(Campbell, 1976; 김재경, 문숙재, 1992; 홍숙선, 2001; 정기선, 2004) 일치하지 않지만, 박태영(1998), 최정혜(2006), 박주희(2011)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로 향후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소득스트레스와 자산스트레스는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3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 결혼만족에 통계적으로 강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불안이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재무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이라는 정서적인 요인이 결혼만족을 크게 낮추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스트레스의 경우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압박 자체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밝힌 권희경(200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갈등과 불화는 결혼만족을 크게 낮추게 되며, 만일 가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갈등은 심해지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가계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에 실직 등과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자금지원이외에 부부 관계 회복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부부간 재무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결과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서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 의사결정 유형이 공동결정형인 가계가 일방결정형인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강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가계의 부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수의 선행연구(Blood, Wolfe, 1960; Jeries, 1977; 손현숙, 1995)와 다소 상이한 결과로 평소 재무문제를 부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계의 경우 재무관리갈등이 높아질 경우 결혼만족도를 더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결정형 가계의 경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부부간 재무가치관유사성에 따른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결과 먼저 소득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부간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더 강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고, 자산스트레스에서 부부간 가계재무관리갈등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재무가치관 유사성이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의 재무스트레스 즉 소득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간 갈등과 장래의 재무스트레스 즉 자산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부부의 대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재무스트레스, 가계 재무관리갈등 및 결혼만족의 구조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로 가계관리자가 인지하는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 재무관리 갈등, 가계재무만족, 결혼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부간 가계재무관리갈등이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부간 공동의사결정과 부부 간 재무유사성이 재무관리갈등을 줄이고 결혼만족을 높이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서 부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검

증하는 실증적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학문적 측면 외에도 가계의 경제 위기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가 아닌 기혼 남성과 여성 각각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과 결혼만족에 대해 고찰하였다. 앞으로는 부부를 공동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에서의 갈등 정도와 의사결정 공동참여 정도를 연구한다면 배우자간 영향 관계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숙자(2011). 경제적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계선자, 박혜성(2008).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57-72.
-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보선, 이영호(1995).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고재홍, 전명진(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7(3), 1-16.
- 고정자(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고지영(2008). 가구 경제 상태와 부부갈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1-3.
- 공성숙(2006). 일반 부부와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4), 434-445.
- 곽인숙(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거소비와 주거이동. 전주우석대학 논문집 11, 141-159.
- 권희경(2009).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59-68.
-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2.
- 김미린, 홍은실(2010).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관

- 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13-129.
- 김성숙(2016). 재무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비고령자 빈곤층의 재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연구, 5(2), 5-33.
- 김은지, 박재호(2010). 부부간 유사성 및 일치도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5(3), 403-423.
- 김재경, 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 김정훈a(1995). 부부사이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 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연구, 6(2) 1-14.
- 김정훈b(1995).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 만족도 ; 남편과 부인, 부인의 직업 유무에 따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6(2), 163-171.
- 김홍은(1986).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79-188.
- 김효민(201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신(1986). 주부구매의사결정과 그에 관련된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89-101.
- 노자경(1996). 농가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변수. 한국농촌생활과학학회지, 7(2) 139-152.
- 박명숙(200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관련변수. 대한가정학회지, 41(11) 49-60.
-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 1-17.

- 박종욱, 손상희(2018). 재무적 문제에 의한 부부갈등 과정. *Financial Planning Review*, 11(1), 27-60.
- 박주희(2011). 취업주부의 역할 만족도와 역할 긴장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201-216.
- 박주희(2015).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71-94.
- 박지은(2011). 부부의 자기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대처방식에 관한 배우자의 의사소통의 영향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 재미교포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 27-50.
-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35-46.
- 손희란, 송선희(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라이프스타일, 부부관계 만족도,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10), 57-69.
- 신화용, 조병은(2009). 자원 및 부부역할 갈등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과 결혼의질 : 재미교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69-295.
- 신효연(2013). 도시가계의 재무상태, 재무의사소통 및 재무스트레스가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효연, 홍은실(2014). 도시가계의 재무상태, 재무의사소통 및 재무스트레스가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3), 137-163.
- 심혜선(2000).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선, 이정우(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29-145.
- 안병철(2000). 경제적 고통과 가족 갈등. 사회와 문화, 11, 165-183.
-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오은주, 정순희(2014). 결혼이민여성의 재무스트레스와 행복감에 대한 질적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73-92.
- 우종필(2014).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 유계숙, 강수향, 오아림, 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5(1), 117-136.
- 유을용(2002). 도시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중산층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을용, 계선자(200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55-173.
- 윤호균, 이선희(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 7, 1-21.
- 이경옥, 정용선(2000). 가치, 경제위기 대처행동, 경제생활만족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3(2), 145-165.
- 이기춘(1996). 가정경제학. 교문사.
-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9.
- 이정우(1980).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우, 강기연(2001).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

-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9), 137-151.
- 이정우, 박은아(2001). 신세대 기혼여성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관리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97-110.
- 이정우, 정진희(1999). 도시 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51-65.
- 이정우, 최덕경(199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115-130.
- 이지혜, 주소현(2013).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45-70.
- 임정빈(1990).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 28(4), 135-153.
- 임정빈, 고보선(1995). 도시신혼가계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Deacon &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8), 156-169.
- 임효영, 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89-203.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장윤옥, 정서린(2009).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대처행동이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129-143.
- 장은경(2001).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지영, 황순택(2012).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7(2), 133-148.
- 장춘미(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4(1), 153-171.
- 전혜성, 서미아(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49-357.
- 정기선, Yoshinori Kamo, 이지혜(2004). What Makes Husband and Wif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s-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한국인구학 33(1), 133-160.
- 정서린, 장운옥(2007). 고용·소득관련 변수와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5(10), 59-71.
- 정선희, 오정옥(1991). 가계의 재정불일치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35.
- 정은애(2007).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 총신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39(11), 89-106.
- 정혜경, 여정성(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1-14.
- 조병은, 이종희, 이현정, 곽선정(2012). 미혼 여교사의 배우자 선택에서의 동질혼 추구 경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1-18.
- 조철호(2015). SPSS/AMOS 활용 구조방정식모형 논문 통계분석. 도서출판 청람
- 조혜정, 임정빈(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5), 15-27.

-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최문임, 최규련(2007). 중년기 여성의 성적 적응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59-83.
- 최정혜(2006).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 와 가족건강성.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18(3), 163-173.
- 한가은, 김정숙(2015). 제주지역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의사소통이 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연구, 4(2), 30-61.
- 허경옥, 김숙(2018). 가계경제부담, 재무관리자신감 및 가계재무만족 간의 구조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49-173.
- 허미화(2004).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미(200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결혼. 한국심리학회지, 20(2), 429-448.
- 현경자(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49-79.
- 현경자, 박선영(2012).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85-411.
- 현은민(2007).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45-58.
- 홍보선(1994).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및 의사결정유형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숙선(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

- 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건, 채규만(2010).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31(2), 299-316.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홍향숙, 이기춘(1999).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9), 39-56.
- 황덕순, 정운영(2001). 재무 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4.
- 황종귀(2009).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825-840.
- Allen A., & Thompson, T.(1984). Agreement, understanding, realization and feeling understood as predictors of communicative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5-921.
- Anderson, J. C. & Gerbing.(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rry, R. & Williams, F.(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Blood R. O. & Wolfe D. M.(1960). *Husband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 : Free Press.
- Burr, W.(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32(1), 29-37.
- Campbell, A. C. P.(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Conger K. J., Simon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Dew, J. & Dakin, J.(2011). Financial Disagreements and Marital Conflict Tactics.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2(1), 7.
- Fincham, F., Beach, S. & Kemp-Fincham, S.(1997). Marital quality: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In R. Sremberg & M. Hojjat(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 Press.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9-50.
- Gudmunson, Clinton G., Ivan F. Beutler, Craig L. Israelsen, J. Kelly McCoy, & E. Jeffrey Hill(2007). Linking Financial Strain to Marital Instability: Examining the Roles of Emotional Distress and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3), 357-376.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 Prentice Hall.
- Hefferan, C.(1982). Determinant and partrten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6.
- Hornback, K. & Shaw, R. W.(1972). Toward a Quantitative Measures of the Quality of Life, Paper presented the Quality of Life Symposium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Jeries, N.(1977). Wives' perceptions of marital decision mak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 146-153.
- Jeries, N.(1979). Marital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wiv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7(4), 226-233.
- Keese, M.(2012). Who feels constrained by highdebt burdens? Subjective vs. objective measures of household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 125-141.
- Lenthall, G.(1977).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3(3), 25-32.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Quality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l, Hill, R., Nye, L., New York: Free Press.
- Lorenz, F. O., Conger, R. D., Simon, R. L., Whitbeck, L. B., & Elder, Jr., G. H.(1991).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quality: An illustration of the method variance problem in the causal modeling of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75-388.
-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 343-360.
- Nickell, P., Rice. A. S. & Turker S . 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Olson, Davi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1989).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News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eirce, R. S.,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1994). Relationship of Financial Strain and Psychosocial Resources to Alcohol Use and Abuse: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Affect and Drinking Mot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91-308.
- Rice, A. S. & Tucker, S. M.(1990). *Family Life Management*, 문숙재, 김정옥 공역. 동명사, 203.
- Rollins, B.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0-28.
- Rowe, B. R, Hansen, K. W., & Peterson, M. M.(1994). *Successful Money Management*. USU Cooperative Extension.
- Varcoe, K. 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of Home economics*, 14, 57-69.
- Voydanoff, P.(1984). Unemployment: Family strategies for Adaptation. in P. Voydanoff, P., Donnelly, B.W.(1988). *Economic Distress, Family Coping, and Quality of Family Life*. In Patricia Voydanoff & Linda C. Majka(eds.). *Families and Economic Distress*, Newbury park, CA:Sage.
-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 Williams, F. L., Nall, M. & Deck, P. 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85-196.

## ABSTRACT

### The Effects of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Kim, Sook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 s University

The ultimate goal of the household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so that family members feel satisfaction and happiness throughout life. However, various factors such as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instability in households income threaten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household and negatively affect the marital satisfaction of households. In order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household in this economic uncertainty,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depth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se variables. In particular, we need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can control these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examines factors affecting these variables as social, demographic and economic aspect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type of financial decision making and the similarity of financial values, which are

considered to affe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se variables.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financial stress,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Third, this stud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martial satisfaction. Fourth, in this structural relationship, we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decision type and financial value similar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bove research problems, a self-filling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married men and women residing in the country. An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Window (version 22.0) and AMOS (version 22.0) programs. Analysis methods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lso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multiple 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ome stress was high in the group with female, fifties,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sales and service job, low income, rented residents, debt

repayment and wife decision type. Asset stress was high in the group with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sales and service job, low income, debt repayment and low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Debt stress was high in the group with low income, debt repayment and low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Second,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was high in the group with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low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low similarity in financial values.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in the group with man, university graduation, professional management job, high income, high similarity in financial values, co-decision type, husband-decision type.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income stress was lower in the twenties and thirties, and professional management job, home ownership, high income, less debt redemption, middle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Asset stress was lower in the few families, high income, high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middle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Also debt stress was higher in the high debt redemption, but debt stress was lower in the high income, high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middle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Fourth,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was lower in the middle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and high similarity in financial values. In the case of marital satisfactio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the mal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 Also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in the twenties and thirties, university graduation, high similarity in financial values.

Fifth,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analysis showed that income

stress and asset stress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s, but debt stre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s. The effect of financial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income stress, asset stress, and debt stress. However,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s had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Sixth,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was found in the indirect path from income stress to marital satisfaction,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sset stress and debt stress.

Seventh,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decision making type was verified in 3 of 7 pathways. The path was the route from debt stress to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from income stress to marital satisfaction, from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to marital satisfaction.

Eighth,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value similarity was verified in 3 of 7 pathways. The path was the route from income stress to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from asset stress to financial management conflict, from debt stress to marital satisfaction.